



8.570482

하이드:  
호른협주곡, 트럼펫협주곡,  
하프시코드협주곡 외

드미트리 바보노프[hrrn]  
위르겐 슈스터[trp]  
헨무트 뮐러-브뤼  
렐른 체임버

8.570570

첼로를 위한 헝가리 음악들  
(바르톡, 도흐나니, 코다이,  
포퍼 외)

마크 코소워[vc]  
오지원[pf]

8.570539

영국 클라리넷 작품집  
(블리스, 핀치, 백스,  
로이드 웨버 외)

존 브래드버리[cl]  
제임스 크라이어[pf]

8.570470-71

JS 바흐:  
류트-하프시코드를 위한  
음악들(BWV995-1000,  
990,1006)

엘리자베스 파르  
[lute-harpsichord]



8.570736

리스트:  
2대의 피아노를 위한  
교향시 편곡들

타미 카나자와 &  
유발 아드모니[pf]

8.570725

유포니움을 위한 음악들  
(모차르트, 베버, 차이코  
프스키 외)

롤란드 프리셔  
[euphonium]  
도미니크 로젠  
카멜라 이스트로폴리타나

8.570704

올윈:  
콘체르토 그로스 1번,  
스톡홀름랜드 춤곡 모음곡,  
전원환상곡 외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  
로알 리버폴 필하모닉

8.570241

앤틸:  
아웃백 서곡,  
발레(코로보리)

제임스 저드  
뉴질랜드 심포니

8.570878

말리피에로:  
교향곡 3,4번 바다의 신  
포니아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  
모스크바 심포니

8.570765

프레타스 브랑코:  
교향곡 1번, 알렌테자나  
모음곡 1번

알바로 카수토  
RTE 내셔널 심포니



8.572039

렌디네:  
교향곡 1,2번

마르치오 콘티  
안도라 국립 오케스트라

8.570826

도넬:  
6개의 모음곡과 트리오  
무지카 바로카

파인 아츠 현악사중주단

8.559354

에반스, 글래스, 앤테일,  
헤르만:  
현악사중주

파인 아츠 현악사중주단

8.570502

소르:  
12개의 연습곡, 서주와  
모차르트 주제의 변주곡,  
환상곡 외

고란 크리보카피츠  
[guitar]

8.570431-33

헨델:  
오라토리오 <세멜레>  
클라우스 메르텐스 외  
요아힘 카를로스 마르티니  
프랑크푸르트 바로크  
오케스트라

클라우스 메르텐스 외  
요아힘 카를로스 마르티니  
프랑크푸르트 바로크  
오케스트라

8.570067

슈베르트:  
낭만시인들의 시에 붙인  
가곡들 Vol.4

플로리안 비슈[bar]  
부르크하르트 케호링[pf]



8.559270

아이브즈:  
가곡 vol.2  
여러 연주자들

8.572098-09

The Best of London  
(엘가, 헨델, 홀스트, 웰  
튼, 하이드 외)

8.558208-09

Discover the  
Symphony

8.111290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엘리노어 루즈벨트[narr]  
세르게이 쿠세비츠키  
보스턴 심포니  
(1950년 녹음)

8.111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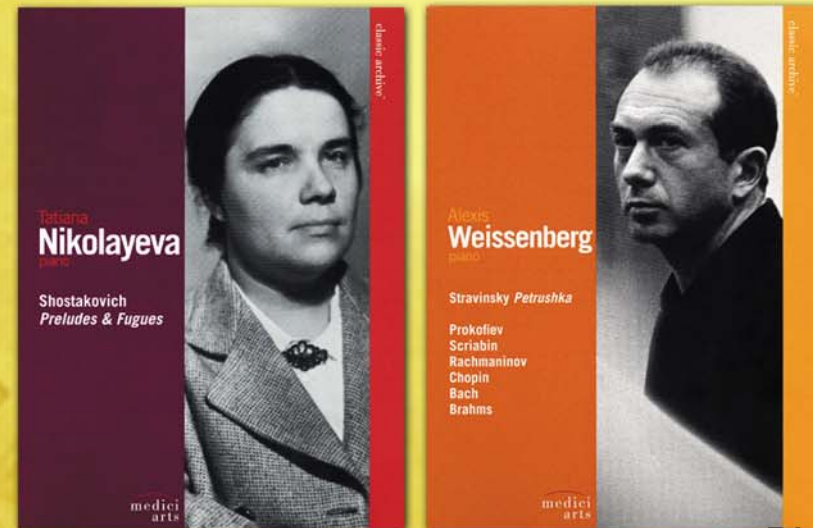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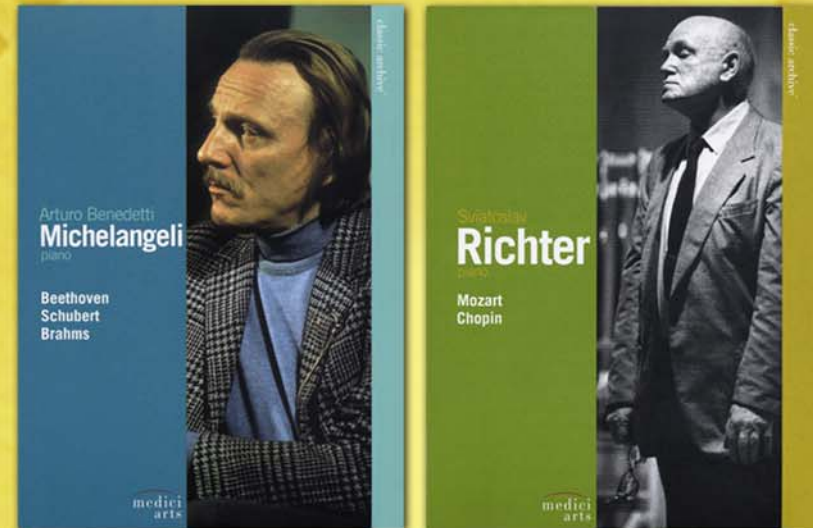
바흐 &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야사 하이페츠[vn]  
알프레드 발렌슈타인 외  
LA 필하모닉 외  
(1946-53년 녹음)

8.111294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7번,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외  
아르투르 &  
카를 울리히 슈나벨[pf]  
존 바비올리 외  
런던 심포니  
(1934-46년 녹음)

#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32호 | June, July 2008



New Release

Opus Arte Blu-ray Disc

마린 알소프의 최신보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Cover Story

영상으로 만나는 건반위의 전설들

[ 불멸의 피아니스트 1 ]

폴리니와 아르헤리치의 스승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베토벤: 소나타 11, 12번  
슈베르트: 소나타 A minor, D537  
브람스: 발라드, Op.10

눈을 꿈쩍거리며 꼭 다문 입을 오물오물 할 뿐 표정변화가 거의 없이 무뚝뚝하고 근엄해 보이  
기만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연출되는 선율은 지극히 아름답다.  
하일리겐슈타트 유서가 나오기 약 2년 전인 1800년에 작곡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 '어느 영웅의 죽음을 애도  
하는 장송행진곡'으로 유명한 12번, 리듬과 조성의 변화가 무  
쌍한 슈베르트의 소나타 D537, 끝으로 DG의 거의 독보적인  
명반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담채화 같은 서정의 브람스의 발  
라드 op.10를 연주한다. 달콤한 안단테는 압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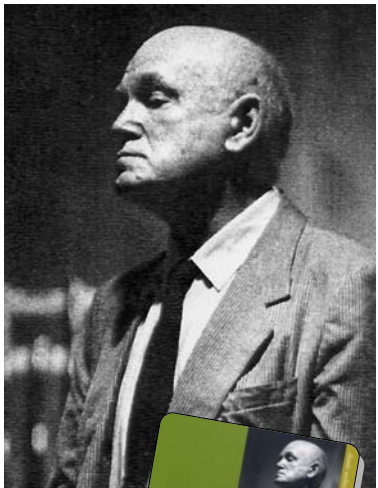
[ 불멸의 피아니스트 2 ]

어안이 병병해질 정도의 완벽한 거장 피아니스트  
스비아토슬라브 리흐테르

모차르트: 소나타 4, 8, 16번 (K.282, 310, 545)  
쇼팽: 에튀드

[ 보너스 ]  
쇼팽: 에튀드, 라흐마니노프 / 에튀드-타블로 Op.39, No.3

1989년 3월 29일 런던 바비칸 센터 연주 실황.  
거장이 74세였던 1989년 3월 29일 런던의 악명 높은 바비칸 센터에서 연주했던 그야말로 주옥  
같은 연주내용이다. 특히 묵직한 왼손 옥타브 화성과 화려한 아르페지오 선율이 조화를 이룬 쇼팽  
연습곡 op.10의 제 1곡과 4곡에서는 한동안 카메라를 위에서 잡아 거장의 강건하면서도 결점이  
전혀 없는 화려한 피아니즘을 만끽하게 해주는데, 그 완전한 연주에 입이 썩 벌어질 정도다. '이별' 연습곡은 그 노  
래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보너스 트랙은 꼭 20년 전 54세 때의 리흐테르의 모습을 담은 BBC 방송 내용  
인데, 라흐마니노프의 에튀드-타블로 한 곡과 쇼팽의 연습곡 op.10의 4번과 12번 '혁명'을, 신기에 가까운 핑거링  
으로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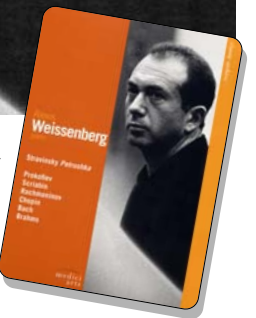


[ 불멸의 피아니스트 3 ]

화려한 출세가도를 걷지 않았던 위대한 강철 타건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

스트라빈스키 - 페트루쉬카 악곡 /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소나타3번  
스크리아빈 - 녹턴 / 라흐마니노프 - 전주곡  
쇼팽 - 피아노 소나타 3번, 녹턴, 에튀드  
바흐 - 반음계적 환상곡, 파르티타 6번, 예수는 인간 소망의 기쁨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2번

그가 연주하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최고의 연주 중 하나라고 단언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  
다. 1929년 불가리아 소피아 태생의 프랑스 피아니스트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가 1950년대 중반  
부터 자신의 예술을 다시 생각해보고 공부하고 가르치며 한동안 연주활동을 중단했다가, 1967년  
카라얀의 베를린 필과 함께 공연하면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던 시점을 전후로 한 기록이다. 바이  
센베르크는 카라얀이 반했던 피아니스트였는데, 영상물이 그럴 만 했다고 느끼게 해준다. 바이센베르크의 레퍼토리 반  
경을 알 수 있는 독주곡 하나하나가 특별한 감동을 주지만 특히 땀을 뻘뻘 흘리며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조르주 프레  
트르와 함께 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놀라울 뿐이다. 정교하면서도 우아하고 웅혼한 기백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브람스 가운데 하나다. 마지막 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도 우아함과 노련함에서 게자 안다의 명연주에  
필적할 만하다. 보너스 트랙은 그가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페트루쉬카 관련 인터뷰다.



[ 불멸의 피아니스트 4 ]

누가 뭐래도 절대적인 권위 니콜라예바

연주자와 레퍼토리만 보고도 무조건 집어들 애호가들이 많은  
니콜라예바가 연주하는 쇼스타 코비치 24개의 전주곡과 푸가

[ 보너스 ]  
"쇼스타코비치를 연주하는 니콜라예바"라는 제목의 14분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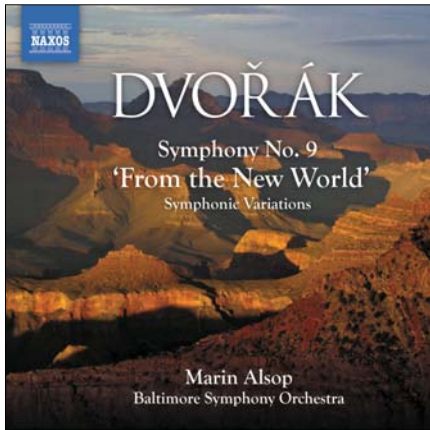
1992년 12월 21부터 30일까지 연주기록. 그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이 영상물은 연주자와 레퍼토리만 보고도 무조건 집어들 애호가들이  
많을 것이다. 쇼스타코비치의 '24개의 전주곡과 푸가'가 이미 오래 전  
부터 하이피어리언의 명반으로 감동을 준 레퍼토리가기 때문이다. 실  
제로 그것은 니콜라예바의 방대한 레퍼토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니콜라예바는 1952년에 레닌그라드에서 이곡을 초연했던 사람이며, 1993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도 바로 그 곡이었다. 여기에 그 작품의 태생적 이유로 썰기를 박아본다. 니콜라예바  
는 26세 때 바흐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쇼스타코비치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녀의  
연주에 반했던 쇼스타코비치가 바로 그녀를 위해 쓴 작품이 바로 '24개 전주곡과 푸가'였다. 이런 운명적 이유로 이  
곡에 관한 한, 아무리 뛰어난 연주가 등장한다고 해도 니콜라예바의 그것이 지닌 권위에는 비할 수 없는 것이다.  
14분에 걸친 다큐멘터리가 보너스로 실렸는데, 제목이 '쇼스타코비치를 연주하는 니콜라예바'다.





Nax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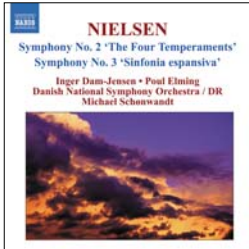
www.naxos.com



8.570714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 교향적 변주곡**  
**마린 알소프/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 알소프는 새롭게 음악감독에 취임한 볼티모어 심포니와 더불어 드보르작의 후기 3대 교향곡을 실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가장 유명한 교향곡 9번 '신세계'로 첫 시작을 알렸다. 2007년 6월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작품의 호방한 기상을 큰 스케일로 펼쳐나가는 알소프의 해석과 볼티모어 심포니의 박력넘치는 연주가 어우러진 쾌연을 들려준다. 작곡가의 중요 관현악소품인 교향적 변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738

**닐센: 교향곡 2번 '4가지 기질', 3번 '확장 교향곡'**

**잉예 담-엔센(sop)/ 포울 엘링  
(br)/ 미카엘 쇠반트/ 덴마크 국  
립방송교향악단**

Dacapo를 통해 발매되었던 교향곡시리즈가 낙소스를 통해 재발매되고 있다. Classicstoday 10/10, BBC 뮤직 매거진 만점, 포노포럼 만점, 2001년 덴마크 뮤직어워드 관현악부문을 수상한 명연으로 닐센 교향곡의 가장 뛰어난 해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중세음악을 지배하던 4기 질서를 기발하게 음악적으로 표현한 교향곡 2번과 소프라노와 테너의 아름다운 보컬리지를 담은 교향곡 3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8.559357

**앤더슨: 쉘매타기, 타이프라이터, 싱코페이트드 클락 외**

**레너드 슬래트킨/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미국 라이트 클래식의 대명사인 르로이 앤더슨. 그의 관현악작품 시리즈의 3번째 음반인 본 신보에는 '쉘매타기', '싱코페이트드 클락', '타이프라이터', '샌드 이퍼 발레' 등의 대표 히트곡들과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의 동요를 각종 장난감 악기들을 동원하여 재미있게 편곡한 'Old MacDonald had a Farm', 브라스 콰이어를 위한 캐를 모음곡, 트럼펫터의 자장가, 세레나타와 같은 정겨운 작품들이 가득 수록되었다.



8.557794

**카발레프스키:**

**피아노협주곡 3번, 림스키코르사  
코프: 피아노협주곡**

**산-니 리우(pf)/ 드미트리 아블  
론스키/ 러시아인 필하모닉 오케스  
트라**

소비에트 젊은이들에게 '현정함'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카발레프스키의 피아노협주곡 3번은 바이올린협주곡, 첼로협주곡 1번과 함께 청년음악도를 위한 협주곡 삼부작을 완결하는 작품이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소재로한 젊은이들을 위한 작품인 랩소디가 함께 수록되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협주곡은 발라키레프가 채집한 러시아 민요에 기초한 곡으로,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단막장 형식의 작품이다.



8.559336

**호바네스:**

**기타협주곡 2번, 교향곡 63번**

**'아비새 호수'**  
**하비에르 칼데롱(guitar)/ 스튜  
워드 로버트슨/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교향곡 63번은 호바네스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뉴햄프셔의 룬 레이크에 대한 향수를 표현한 작품으로, 실제 아비새(loon)의 울음소리를 작품 속에 삽입했다. 기타협주곡 2번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나르시소 예페스의 위촉작으로 다양한 리듬 패턴이 교차하는 생동감 넘치는 춤곡 스타일의 작품이다. 장대한 스케일의 감동적인 대작인 '뉴 아틀란티스'를 위한 팡파르'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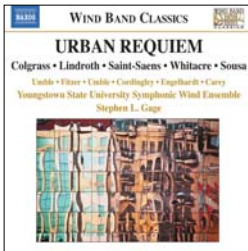
8.570951

**모우차스:**

**가상의 영화를 위한 음악, 프리  
마 마테리아 외**

**밀토스 로기아디스/ 소피아 필하  
모닉 오케스트라**

로스 모우차스(1962년생)의 관현악 작품집. 연금술의 세 가지 재이코에 대한 향수를 표현한 작품으로, 실제 아비새(loon)의 울음소리를 작품 속에 삽입했다. 기타협주곡 2번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나르시소 예페스의 위촉작으로 다양한 리듬 패턴이 교차하는 생동감 넘치는 춤곡 스타일의 작품이다. 장대한 스케일의 감동적인 대작인 '뉴 아틀란티스'를 위한 팡파르'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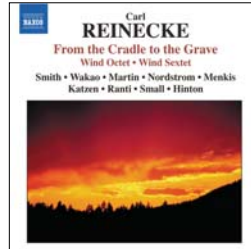


8.570946

**Urban Requiem(생상, 수자,  
쇼스타코비치, 콜그래스 외)**

**스티븐 L 게이지/ 영스타운 주립  
대학 심포닉 윈드 앙상블**

4대의 색소폰과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Urban Requiem은 폴리처상 수상자 마이클 콜그래스의 작품. 리 브룩스가 편곡한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는 독주 바이올린 파트를 플루트와 클라리넷 이중주로 연주해 나간다. 쇼스타코비치의 강력한 '러시아와 키르기즈 민요에 의한 서곡'은 가이 더커의 절묘한 편곡을 통해 멋진 브라스 레퍼토리로 변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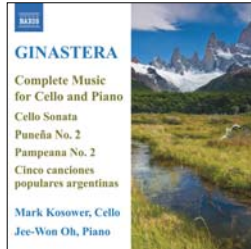


8.570777

**라이네키편:**

**요람에서 무덤까지, 목관8중주,  
목관6중주**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을 슈만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라이네키편은 작곡가, 지휘자, 음악교사 등의 다방면에서 활약했던 음악가였다. 특히 관악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목관 8중주와 목관 6중주는 로맨틱한 악상과 각 악기들의 독특한 음색을 적절히 어우러진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오리지널은 16편의 피아노소품으로 구성된 작품집이나, 에르네스토 파올러가 피아노 반주의 플루트 곡으로 편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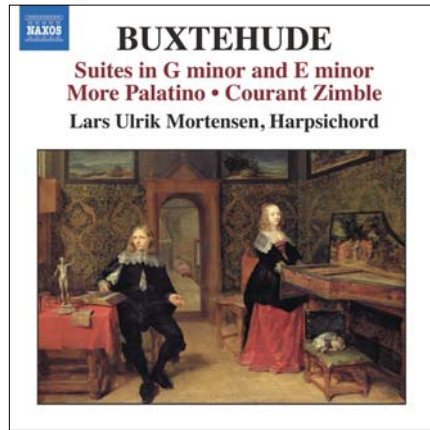


8.570569

**히나스테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첼로소나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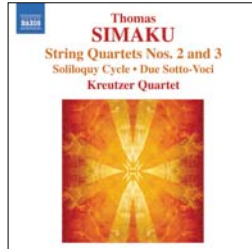
**마크 코소워(vc)/ 오지원(pf)**  
아르헨티나 출신의 히나스테라는 브라질의 빌라로보스와 더불어 20세기 라틴아메리카 클래식을 대표하던 작곡가였다. 이 나라의 전통음악을 차용한 '5개의 아르헨티나 유행가'는 원래 피아노반주의 성악곡이었지만, 연주자 코소워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것이다. 팜페아나 2번 역시 민속음악에 기반을 둔 작품. 강렬한 리듬이 돋보이는 첼로소나타는 신표현주의에 경도되어있던 작곡가의 만년작이다.



8.570580

**북스테후데: 하프시코드 작품집 Vol.2**  
**라스 울릭 모르텐센(cemb)**

존 홀로웨이와 함께 했던 북스테후데의 실내악시리즈로 큰 화제를 낳았던 덴마크의 정상급 하프시코드주자 모르텐센이 들려주는 북스테후데의 두 번째 건반작품집. 다카포의 음원이 낙소스를 통해 재발매된 것으로, 바흐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 작곡가의 뛰어난 재능을 확인케 해주는 음반이다. 바로크 춤곡 모음곡, 학생들의 권주가에 의한 변주곡, 코랄 편곡 등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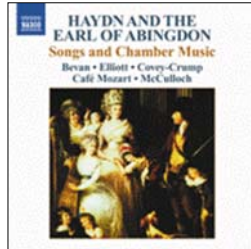


8.570428

**시마쿠:**

**현악사중주 2, 3번**  
**크로이처 현악사중주단**

토마스 시마쿠(1958년생)는 알바니아 출신의 영국 작곡가다. 현악사중주들은 그가 그리스 접경의 알바니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시절 체득했던 남동유럽의 독특한 음악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승화한 작품들로, 각각 '성스러운 음 성' (3번)과 '반 지름' (Radius)(2번)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이 붙어 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독특한 무반주 작품 시리즈인 '솔리오퀴' 사이클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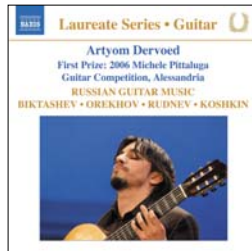


8.570525

**하이드 & 아빙던 백작:**

**가곡과 실내악 작품들**  
**카페 모차르트**

4대 아빙던 백작이었던 윌러프 비 버티는 18세기 후반 런던을 대표하던 음악후원자이자 아마추어 작곡가였다. 그는 두 차례 런던을 방문했던 하이드와 특별한 교분을 가졌었는데, 당시 이들이 남긴 소품들을 카페 모차르트의 아가자기한 연주로 수록하였다. 2대의 플루트와 베이스비올을 위한 하이드의 잉글리시 트리오, 같은 편성을 위한 버티의 시골춤곡, 세익스피어에 기초한 하이드의 성악소품들이 매력적이다.



8.570447

**러시아 기타 작품집**

**(빅타세프, 오레호프, 루드네프,  
코슈킨)**

**아르티움 데르보이드(guitar)**  
2006년 미첼레 피탈루가 콩쿠르 우승자인 러시아의 기타리스트 아르티움 데르보이드는 자국의 기타음악만으로 러시아를 음반을 장식하였다.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에 기초한 빅타세프의 유명한 작품인 '오르페우스', 유명한 민요의 선율에 기초한 오레호프의 '트로이카 변주곡', 역시 유명한 작품인 루드네프의 '늙은 라임나무', 마지막으로 코쉬킨의 동화적인 내용의 작품인 '왕자의 장난감' 모음곡이 수록되었다.



8.570710

**쿨라우:**

**피아노 소나티나 Op.55 & 88**  
**예뇌 안도(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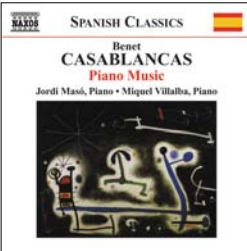
베버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쿨라우는 작곡가와 피아니스트로 활약했으며, 뛰어난 피아노교사였다. 고전적인 양식미 속에 모차르트를 연상케하는 명랑한 악상을 담은 그의 소나티나들은 학생들의 교습용이나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연주 레퍼토리로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2집에는 Op.55의 6곡과 Op.88의 4곡이 수록되었다. 낙소스의 간판 예뇌 안도의 최신 녹음.



8.570567  
**파스쿨리: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오페라 판타지아**  
**이반 파이스프(ob)/ 나탈리아 슈체르바코바(pf)**  
안토니오 파스쿨리(1842~1924)는 19세기 후반 가장 뛰어난 오보에주자의 한 사람이었다. 연주와 교육활동 틈틈이 자신의 약기를 위해 여러 패러프레이즈 소품들을 완성하였는데, 음반에는 이태리 오페라(도니제티의 폴리우토와 라 파보리타, 베르디의 시실리의 저녁기도, 마이아베어의 위그노)들의 선율을 차용한 4편의 작품과 향토색이 깃든 '나폴리의 추억'이 수록되었다. 오보에 애호가들을 위한 강력 추천 음반.



8.570442  
**태브나: 피아노 작품집**  
**랄프 판 라트(pf)**  
존 태브너(1944년생)는 중세 비잔틴 음악을 지향했던 자신의 독특한 음악관을 반영한 피아노 작품들을 여럿 남기고 있다. 예수의 부활을 그리스와 중동 풍의 분위기로 아름답게 표현한 '이파코에'와 인간 내면의 성령을 패르트를 연상시키는 명상적인 스타일로 표현한 '프라티루파'의 두 대작 외에도, 자신의 고양이의 일상을 표현한 '맨두들스', 종교적인 분위기의 소품 '팔린'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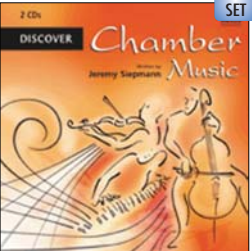
8.570757  
**카사블랑카스: 피아노 작품집**  
**호르디 마소 & 미구엘 비알바(pf)**  
베네트 카사블랑카스(1956년생)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현역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신 빈악파에 음악적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자국의 독특한 향토색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개성적인 음악세계를 구사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초기작인 프렐류드와 푸가, 두 개의 피아노 소품에서부터 2006년에 완성된 최신작인 2대의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디베르티멘토까지 이 작곡가의 음악이력 전반에 걸친 피아노 작품들이 망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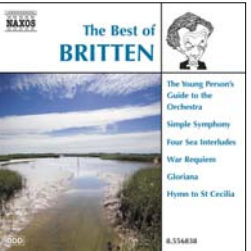
8.559269  
**아이브즈: 가곡 1집**  
**Various Artists**  
미국 현대음악의 선구자 아이브즈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틈틈히 작곡활동을 병행했다. 음악과 일상의 통일을 추구했던 이 작곡가는 군악대 음악, 당시 유행가, 민요, 찬송가 등의 당대의 생활 속의 여러 음악들을 자신의 음악 속에 적극 받아들였다. 본 음반에는 13명의 미국의 젊은 성악가들과 3명의 피아노 반주자, 오르간주자, 현악사중주단이 참여하여 당시의 삶을 반영했던 작곡가의 노래들을 다채롭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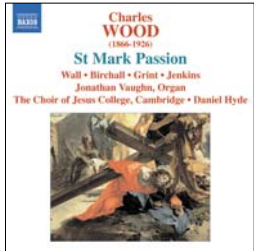
8.660233-34  
**로시니: 행복한 착각(L'inganno felice)**  
**여러 가수들/ 알베르토 체다/ 브루노 체코 체임버 솔로이스츠**  
로시니의 '행복한 착각'은 '후궁 탈출'과 유사한 일종의 탈출오페라다. 1812년 초연 이후 큰 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각 성역별로 아름다운 선율의 아리아들이 즐비한 매력적인 작품이다. 한동안 잊혀진 작품이지만, 최근 로시니 재발견 열풍과 함께 다시금 이 작품이 오페라 애호가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2005년 빌트바트 로시니 페스티벌의 실황으로 원로 로시니 전문가 알베르토 체다가 지휘봉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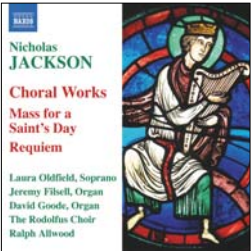
8.558206-07  
**Discover Series: Chamber Music**  
15세기 하인리히 이자크에서 시 작하여, 코렐리,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를 거쳐서 쇤베르크와 바르톡, 메시앙, 그리고 클로드 볼랑에 이르기까지 실례악 장르의 발전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음반. 실례악 전례미 시프만의 190페이지에 이르는 상세한 내지해설이 감상자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8.556838  
**The Best of Britten**  
성 세실리아를 위한 찬가, 4개의 바다 전주곡 중 일요일 아침과 폭풍, 진혼교향곡 중 라크리모사, 젊은이를 위한 관현악 입문 중 테마와 푸가, 세레나데 중 엘레지, 심플 심포니 중 즐거운 피치카토, 프랑크 브리지 변주곡 중 푸가와 피날레, 전쟁레퀴엠 중 레퀴엠 에테르나, 성처녀를 위한 찬가, 글로리아나 중 글로리아나 모리투라, 어린이들 안에서 기뻐하라 중 주안에서 기뻐하라, 카바레 송 중 사랑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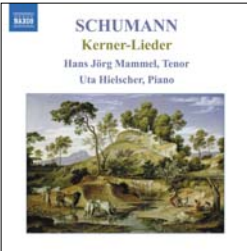
8.570561  
**우드: 마가수난곡**  
**사이먼 월(복음사가) 외/ 다니엘 하이드/ 캠프리지 지저스 칼리지 합창단**  
찰스 우드(1866~1926)는 근대 영국성공회음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작곡가다. 1920년에 완성한 마가수난곡은 영어 복음서에 기초한 수난곡으로, 복음사가가 전하는 복음서의 내용 사이사이에 유명한 그레고리안 찬트 '판제 링구아'의 선율을 차용한 찬송가들이 적절히 삽입되어 있다. 음반 말미에는 베이스투어의 오르간 작품인 '판제 링구아'에 의한 토카타와 푸가를 함께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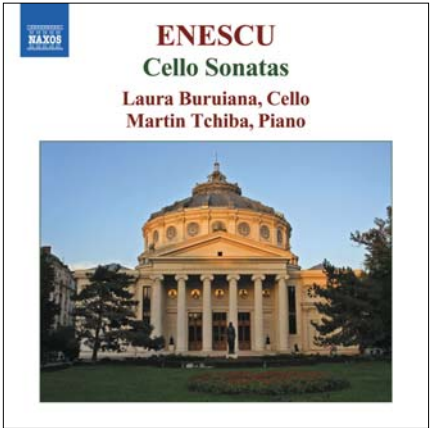
8.570959  
**잭슨: 레퀴엠, 성인축일을 위한 미사, 테 데움, 마그니피카트 외 제레미 필렛(org)/ 랄프 얼우드/ 로돌푸스 콰터**  
니콜라스 잭슨(1934년생)은 오르간연주와 작곡 양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다. 영어텍스트에 기초한 '성인축일을 위한 미사'는 발표 이후 영어권 지역 교회합창단들의 중요 레퍼토리로 자리잡았으며, 뒤르플레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레고리안 찬트를 적절히 삽입한 레퀴엠 역시 뛰어난 작품이다. 그레고리안 찬트 '허여 노래하라'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탄툼 에르고'를 비롯한 그의 대표 합창곡들을 만날 수 있다.



8.557900-01  
**모차르트: 가곡전집**  
**루트 지작(sop), 로타르 오디니우스(te), 울리히 아이젠로어(pf)**  
모차르트는 다양한 성격의 가곡들을 다수 남겼다. 지인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개인적인 작품이 있는가 하면, 프리메이슨 행사를 위한 노래나 황제의 외국 원정을 기리는 찬가 등의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작품들도 존재한다. 돈조반니의 세레나데를 연상케 하는 만들어진 반주의 가곡 '오라 사랑하는 지터', 목가풍의 '마법사', 드라마틱한 '루이자가 연인의 편지를 불태울 때', 달콤쌉사름한 '제비꽃' 등이 특히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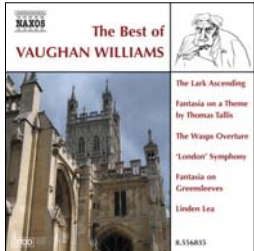
8.557077  
**슈만: 케르너 리트, 유겐트 리트, 4개의 가곡, 5개의 가곡**  
**한호 외르크 맘멜(te)/ 우타 히엘셔(pf)**  
낙소스 슈만 가곡 시리즈의 4번째 음반. 독일 시인 유스투스 케르너의 시에 기초한 두 편의 연작 가곡집(12개의 케르너 리트, 유겐트 리트)이 음반의 중심을 이룬다. 유겐트 리트는 작곡가가 18세때 완성한 싱그러운 작품이며, 12개의 리트는 이른바 가곡의 해라고 불리던 1839/40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역시 가곡의 해에 완성된 작품들인 5개의 리트(Op.127)과 4개의 리트(Op.142)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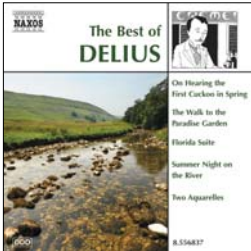
8.570582  
**에네스쿠: 첼로소나타 1,2번**  
**라우라 부뤼아나(vc), 마틴 치바(pf)**  
20세기 초반 최고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의 한 사람이었던 에네스쿠는 고국 루마니아의 민속음악에 기초한 여러 뛰어난 작품을 남긴 작곡가이기도 했다. 그는 두 곡의 첼로소나타를 작곡했는데, 그 중 1번은 브람스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로맨틱한 작품이며, 카잘스에게 헌정된 2번은 작곡가의 실내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특히 '루마니아 땡으로'라고 표기된 마지막 악장이 인상적이다.



8.570482  
**하이든: 호른협주곡, 트럼펫협주곡, 하프시코드협주곡 외 드미트리 바보노프(hrn), 위르겐 슈스터(trp)**  
**헬무트 뮐러-브뤼, 필름 체임버**  
고금의 트럼펫협주곡들 중 가장 유명한 하이든의 협주곡과 독주자의 뛰어난 기교를 요구하는 호른협주곡 1번, 원래 오르간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프시코드협주곡 Hob18-2, 작곡가의 유일한 이중협주곡인 바이올린과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본 음반에서는 포르테피피아노를 사용)을 함께 수록. WDR 심포니의 솔로 위르겐 슈스터와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수석 드미트리 바보노프가 독주를 맡음.



8.556835  
**The Best of Vaughan Williams**  
북위 49도 중 전주곡, 토마스 탈리스 주제의 환상곡, 린덴 리아, 교향곡 2번 '런던' 중 1악장, 말벌 서곡, 고요한 오후, 다이브스와 라자루스 변주곡 중 일부, 교향곡 1번 '바다' 중 2악장, 그린슬리브스 환상곡, 날아 오르는 종달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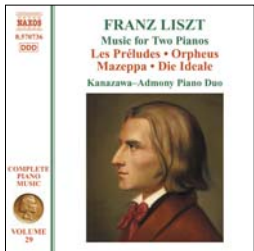
8.556837  
**The Best of Delius**  
봄의 첫 뼈꾸기 소리를 듣고, 강에서의 여름밤, 이멜린 전주곡, 플로리다 모음곡 중 강가에서, 두 개의 수채화, 스케로초, 판타직 댄스, 마을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천국 정원으로의 산책, 3개의 작은 교향시 중 겨울밤, 봄의 자장가, 코양가 중 라 칼린다와 마지막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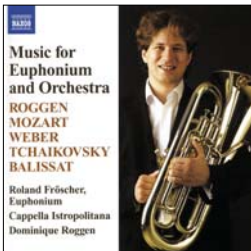
8.556836  
**The Best of Finzi**  
클라리넷협주곡 중 1악장, 첼로협주곡 중 2악장, 디에스 나탈리스 중 전주곡, 땅과 공기와 비 중 롤리쿰-로룸, 피아노와 현을 위한 에클로그, 젊은이의 충고, 불멸의 암시 중 새들아 노래하라, 세실리아를 위하여 중 즐거운 여신이며, 낙엽 중 안단테, 현을 위한 전주곡 중 아다지오, 7개의 무반주 파트송 중 맑고 부드러운 물결, 세상이 사라질 때까지 중 이 곳은 여름 같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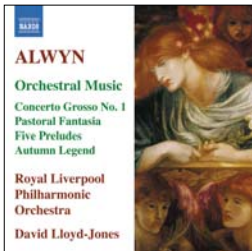
8.503199  
**Arvo Part Box Set [ CD 1 ] (8.553750)**  
Fratres, Festina Lente, Suma [ CD 2 ] (8.555860)  
Passio (St. John Passion) [ CD 3 ] (8.557299)  
Berliner Messe, Magnificat, Summa  
작은 종소리의 울림을 뜻하는 '틴티나볼리'를 자신의 음악적 모토로 삼아서 종교적인 신바람에 가득찬 독특한 음악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보 파트. 낙소스에서 발매된 그의 음반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세 음반을 묶어서 박스 세트로 재발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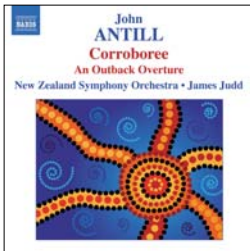
8.570736  
**리스트: 2대의 피아노를 위한 교향시 편곡들**  
타미 카나자와 & 유발 아드모니(pf)  
리스트는 여러 선배 및 동료작곡가들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련악곡들도 피아노를 위해 즐겨 편곡하였다. 본 음반에는 2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작곡가 자신의 대표적인 교향시 4편이 수록되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교향시인 '전주곡', 그리스 신화를 다룬 '오르페우스', 우크라이나의 영웅을 그린 초절기교 연습곡 4번을 관련악곡으로 확장했던 '마제파', 실러의 시를 소재로 한 '이상' (Die Ideale)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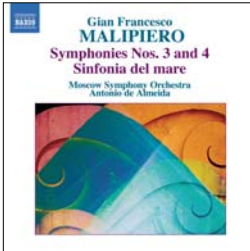
8.570725  
**유포니움을 위한 음악들(모차르트, 베버, 차이코프스키 외)**  
롤란트 프뢰셔(euphonium)/ 도미니크 로젠/ 카펠라 이스트로플리타나  
작은 사이즈의 튜바라고 할 수 있는 유포니움은 오케스트라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브라스 밴드에서는 중저음역을 담당하는 핵심 악기다. 본 음반은 독주악기로서의 유포니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모차르트와 베버의 바순협주곡을 유포니움으로 근사하게 연주하였고, 지휘자 로젠이 바로크 스타일로 작곡한 유포니움협주곡의 매력도 뛰어나다. 이 악기로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의 매력도 각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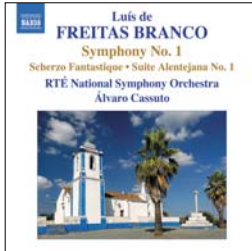
8.570704  
**올윈: 콘체르토 그로스 1번, 스코틀랜드 춤곡 모음곡, 전원환상곡 외**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윌리엄 올윈은 5편의 교향곡을 비롯하여 50편 가량의 관련악곡을 작곡하였다. 본 음반에는 개성적인 관현악 소품들 7편이 수록되었다. 콘체르토 그로스 1번은 바로크 양식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독특한 작품이며, 제목 그대로 목가적인 서정을 담은 파스토랄 판타지아, 오케스트라의 미묘한 색채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섯 전주곡, 경쾌발랄한 스코틀랜드 춤곡 모음곡 등을 수록.



8.570241  
**앤티일: 아웃백 서곡, 발레 <코로보리>**  
제임스 저드  
뉴질랜드 심포니  
발레 '코로보리'는 호주 작곡가 존 앤티일(1904-86)의 대표작으로, 호주 원주민 아보리지안들의 종교전례인 코로보리의 강렬한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오랜기간 동안 원주민음악에 몰입했던 이 작곡가의 열정과 노력이 반영된 작품으로, 각종 미국 악사에 신기원을 이룬 걸작으로 평가되었다. 함께 수록된 아웃백 서곡은 스트라빈스키의 강렬한 리듬과 영국 민요의 서정미를 함께 느끼게 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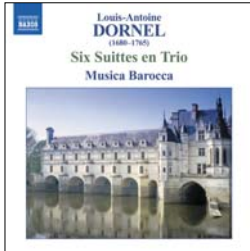
8.570878  
**말리피에로: 교향곡 3, 4번 바다의 신포니아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 모스크바 심포니**  
말리피에로(1883-1973)는 레스피기 이후 가장 위대한 이탈리아 작곡가로 꼽힌다. 작곡가의 교향곡 시리즈의 첫 음반인 이번 신보에는 가장 널리 알려진 교향곡 3, 4번과 단악장의 바다교향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2차대전 중에 완성된 3번은 독일의 공격을 알리는 베니스 성 마르코 사원의 벨소리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며, 나탈리 쿠세비츠키를 추모하는 교향곡 4번은 느린 악장의 아름다움이 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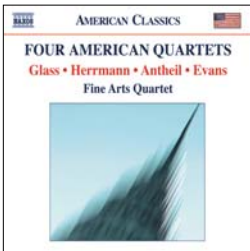
8.570765  
**프레이타스 브랑코: 교향곡 1번, 알렌테자나 모음곡 1번 알바로 카수토 RTE 내셔널 심포니**  
루이스 데 프레이타스 브랑코(1890-1955)는 20세기 전반기 포르투갈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교향곡 1번은 프랑크와 브람스의 영향을 자신의 스타일로 흡수한 작품이며, 알렌테자나 모음곡은 남부 포르투갈의 알렌테조 지역의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 계열의 작품이다. 이 작곡가의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을 맛볼 수 있는 스케르초 판타스티코도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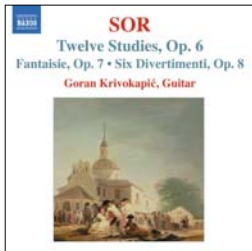
8.572039  
**렌디네: 교향곡 1, 2번 마르치오 콘티 안도라 국립 오케스트라**  
이탈리아 작곡가 세르조 렌디네(1954년생)의 교향곡 1번은 작곡가의 고향 나폴리의 민요인 'trantella funebre'에 기초한 흥겨운 마지막 악장이 인상적이며, 안도라 정부의 위촉작인 교향곡 2번 '안도라나'는 프랑스-스페인 국경에 위치한 이 작은 나라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두 교향곡 모두 보수적인 조성체계를 사용한 작품들인만큼 현대음악에 대한 두려움을 접어 두어도 좋다.



8.570826  
**도넬: 6개의 모음곡과 트리오 무지카 바로카**  
루이 앙트앙 도넬(1680-1757)은 바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프랑스 작곡가다. 현존하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지만 최신 유행을 적극 받아들였던 이 작곡가의 열린 사고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는기에 충분하다. 6개의 모음곡과 트리오에는 전형적인 프랑스 풍의 바로크 춤곡 모음곡들로 구성되었다. 장중한 서곡이나 표정 풍부한 전주곡에 이어서 각 양각색의 춤곡들의 매력이 다채롭게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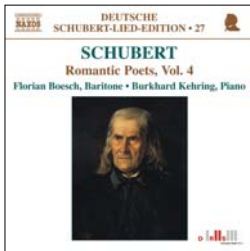
8.559354  
**에반스, 글래스, 애펀테일, 헤르만: 현악사중주**  
파인 아츠 현악사중주단  
미니멀음악의 대가 필립 글래스의 현악사중주 2번 '컴퍼니'는 사무엘 베케트의 산문시에 기초한 작품으로, 후일 현악합주버전으로 편곡되었을 정도로 애정을 기울였던 대표작이다. 조지 애펀테일의 현악사중주 3번은 '음악계의 악동'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재치만점의 작품으로 각종 미국 악사에 신기원을 이룬 걸작으로 평가되었다. 함께 수록된 아웃백 서곡은 스트라빈스키의 강렬한 리듬과 영국 민요의 서정미를 함께 느끼게 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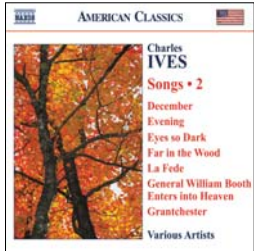
8.570502  
**소르: 12개의 연습곡, 서주와 모차르트 주제의 변주곡, 환상곡 외 고란 크리보카피츠(guitar)**  
스페인 작곡가 소르는 기타의 베토벤이라고 칭송 받았을 정도로 기타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름이다. 그가 남긴 12개의 연습곡들은 소량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교연마의 목적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 하나의 뛰어난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낸다. '서주와 모차르트 주제의 변주곡'은 마술피리 1막 피날레에 등장하는 친근한 아리아 'Das klinget so herrlich'의 선율에 기초하여 완성한 기교적인 작품이다.



8.570431-33  
**헨델: 오라토리오 <세멜레>**  
클라우스 메르텐스 외/ 요아힘 카를로스 마르티니/ 프랑크푸르트 바로크 오케스트라  
세멜레'는 헨델이 1743년에 완성한 세속 오라토리오이다. 그리스/로마 신화 중의 주피터와 테베의 공주 세멜레의 비극적인 사랑을 소재로 삼은 작품으로 헨델의 창조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에 완성되었던 절품이다. 'Where'er you wali'와 'Myself I shall adore'와 같은 유명한 아리아들과 더불어 스펙트클한 관현악 간주곡들과 화려한 합창이 작품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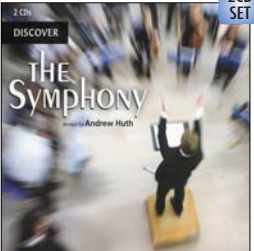
8.570067  
**슈베르트: 낭만시인들의 시에 붙인 가곡들 Vol.4**  
플로리안 뵉슈(bar)  
부르크하르트 케호링(pf)  
슈베르트는 고대 그리스에서 동시대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115명의 시인들의 텍스트에 곡을 붙였다. 낙소스 도이치 슈베르트 리트 에디션은 700여편에 이르는 작곡가의 가곡들을 시인들에 따라 구분지어 수록해왔다. 본 음반은 낭만시인 시리즈의 네 번째 음반으로, 뢰케르트, 괴르너, 슈라이버, 쉐레겔 등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들을 담고 있다. '순례', '노년의 노래', '숲속에서', '벧사공', '삶의 선물', '세 가지' 등을 수록.



8.559270  
**아이브즈: 가곡 vol.2**  
**여러 연주자들**  
미국 현대음악의 선구자 아이브즈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틈틈히 작곡활동을 병행했다. 음악과 일상의 통일을 추구했던 이 작곡가는 군악대 음악, 당시 유행가, 민요, 찬송가 등의 당대의 생활 속의 여러 음악들을 자신의 음악 속에 적극 받아들였다. 본 음반에는 14명의 미국의 젊은 성악가들과 4명의 피아노 반주자, 오르간주자가 참여하여 당시의 삶을 반영했던 작곡가의 노래들을 다채롭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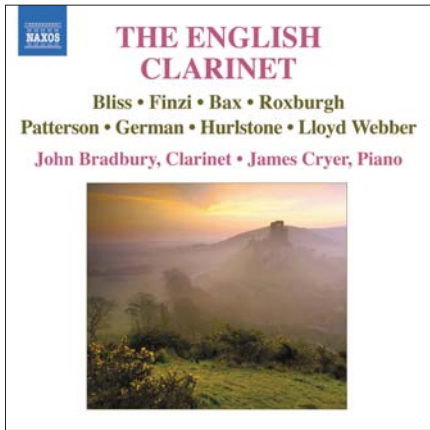
8.572098-99  
**The Best of London (엘가, 헨델, 홀스트, 월튼, 하이든 외)**  
음악의 도시 런던과 관련된 인기 작품들을 엄선한 색다른 기획음반. CD1에는 코츠의 런던 모음곡과 런던 콜링, 우드의 런던 카메오와 런던 랜드마크 모음곡, 토치의 런던 교통 모음곡, 레인의 런던 살루트, 파년의 웨스트민스터 왈츠 등등 이 도시의 명소들을 소재로 만든 친근한 선율의 라이트 클래식들이 수록되었고, CD2에는 하이든과 본월리엄스의 런던교향곡들, 월튼의 크라운 임페리얼, 홀스트의 세인트 폴 모음곡, 대관식 단골 레퍼토리인 헨델의 '사제 자독' 등의 정통 클래식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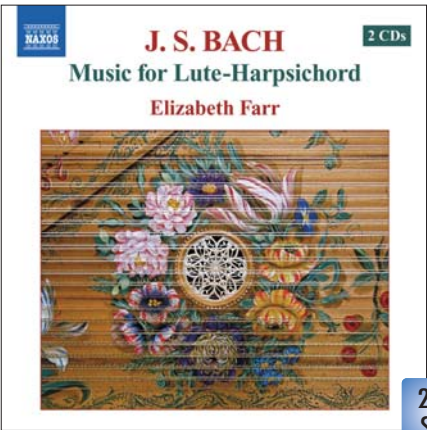
8.558208-09  
**Discover the Symphony**  
조반니 바티스타 삼마르티니와 요한 슈타미츠에 의해 고전 교향곡이 태동된 이후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를 거쳐서 베를리오즈, 브람스, 말러, 시벨리우스, 쇼스타코비치, 루토스와브스키에 이르는 교향곡 역사의 긴 여정을 갈무리한 음반. 158페이지에 이르는 두툽한 내지에는 음악 컬럼니스트 앤드류 허스가 저술한 교향곡의 역사와 각 시대별 대표교향곡들을 보기 좋게 정리한 도표, 각 시대별 오케스트라 편성 등의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 채워졌다.



8.570570  
**첼로를 위한 헝가리 음악들(바르톡, 도흐나니, 코다이, 포퍼 외)**  
**마크 코스워(vc)/ 오지원(pf)**  
리스트, 포퍼, 도흐나니, 바르톡, 코다이, 로사 등 근현대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매력적인 첼로 작품들을 담았다. 리스트의 가곡 '노넬베르트 수도원'은 첼로의 그윽한 중저음을 통해 서정미를 한층 드러낸다. 포퍼의 두 소품은 우아한 살롱풍의 작품이며, 바르톡의 랩소디는 헝가리의 민요에 기반을 두었다. 전형적인 로맨틱 소나타인 도흐나니의 첼로소나타와 로사의 기교적인 무반주 작품인 토카타를 함께 수록.



8.570539  
**영국 클라리넷 작품집**  
(블리스, 핀치, 벡스, 로이드 웨버 외)  
**존 브래드버리(cl)/ 제임스 크라이어(pf)**  
클라리넷은 모차르트 이후 많은 작곡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매력만점의 악기다. 특히 영국 근대 작곡가들은 이 악기를 위해 아름다운 소품들을 다수 완성하였다. 뮤지컬 황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아버지인 월리엄의 두 소품과 저먼의 로망스는 클라리넷의 서정을 만끽하는 매력만점의 작품들이며, 핀치의 소나타와 벡스의 5개의 바가텔, 그리고 블리스의 파스토랄에서는 이 악기의 변화무쌍한 음색을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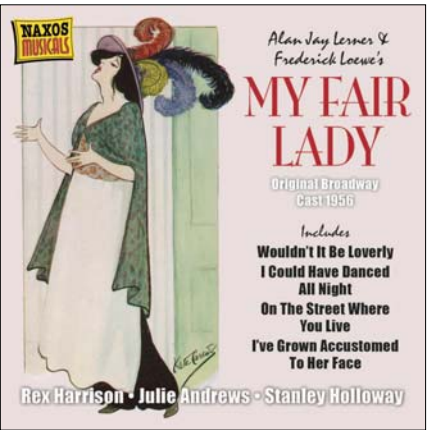


8.570470-71  
**JS 바흐:**  
**류트-하프시코드를 위한 음악들(BWV995-1000, 990,1006)**  
**엘리자베스 파르(lute-harpsichord)**  
류트-하프시코드는 거트현을 사용한 건반악기로 하프시코드에 비해 부드러운 음향과 류트에 비해 한층 폭넓은 음역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악기다. 바흐는 2대의 류트-하프시코드를 보유했다고 전해진다. 본 음반에서는 바흐가 류트를 위해 작곡 또는 편곡한 작품들을 류트-하프시코드로 연주하였다. 악기 장인 키스 힐이 이 악기에 대한 바흐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제작한 악기를 연주에 사용하였다.



## Naxos Nostalgia & Historical

www.naxos.com



8.120876  
**My Fair Lady**  
**1956년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캐스팅**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로도 너무나 잘 알려진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고전 '마이 페어 레이디'를 56년 오리지널 캐스팅의 노래로 담은 음반. '사운드 오브 뮤직'의 히로인 줄리 앤드류스가 주인공 미스 두리틀을 맛깔스럽게 노래하였다. 'with a little bit of luck', 'the rain in Spain',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등의 추억의 히트송들로 가득한 뮤지컬의 베스트 & 스테디 셀러.



8.111003  
**베토벤: 교향곡 5번, 에그몬트서곡,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 외**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20-30년대 최전성기 시절 사자와도 같은 맹렬한 모습의 푸르트벵글러를 담은 음반. 1926년에 녹음된 베토벤 교향곡 5번은 열악한 음질에도 불구하고 거장의 카리스마가 온전히 전해져오는 역사적인 레코딩이다. 로시니의 유명한 두 서곡(도둑 까치(30년), 시빌라의 이발사(35년))과 마탄의 사수 서곡(26년), 에그몬트 서곡(33년)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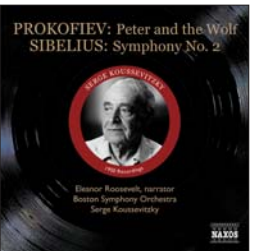
8.111276-77  
**베르디: 리골레토 (1956년 녹음)**  
**유시 비올링, 로버트 메릴, 로버타 피터스/ 요넬 페렐레아/ 로마 오페라**  
1956년 RCA를 통해 발매되었던 베르디의 '리골레토'는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인 테너 유시 비올링을 대표하는 명반의 하나다.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성악가인 바리톤 로버트 메릴의 타이틀을 역시 이 역사적인 명반의 가치를 더욱 더 높였다. 음반의 여백에는 로버트 메릴이 노래하는 베르디와 로시니의 유명 아리아들이 수록되었다.



8.111289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 파가니니 변주곡**  
**아르투르 루빈시타인(pf)/ 블라디미르 골슈만 외/ NBC 심포니 외**  
루빈시타인은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을 4차례 정식 녹음하였다. 1946년 골슈만과의 협연은 라이너와의 유명한 협연(56년)에 뒤지지 않는 거장의 폭발적인 연주를 보여준다. 이듬해 녹음된 파가니니 변주곡은 발터 서스킨드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와의 협연으로, 지금 기준에서도 준수한 음질이 돋보이는 수연이다. 루빈시타인이 녹음한 몇 안되는 작곡가의 독주곡인 유명한 전주곡Op.3-2가 음반의 여백을 채운다.



8.111314  
**안드레아스 세고비아 1950년대 미국 레코딩**  
**슈만, 브람스, 그리그, 파야, 빌라로보스, 모레노 토르바, 요베트, 스크리아빈 외**  
낙소스를 통해 복각되었던 세고비아의 1950년대 레코딩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슈만, 브람스, 프랑크, 그리그 등의 로맨틱 작곡가들의 소품 편곡과 파야, 요베트, 빌라로보스 등의 20세기 라틴 작곡가들의 개성적인 오리지널 기타곡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파야의 '드뷔시의 무덤'과 빌라로보스의 '연습곡', 모레노 토레바의 소나타나와 같은 기타 걸작들을 거장의 연주로 담은 소중한 음반.



8.111290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엘리노어 루즈벨트(narr)/세르게이 쿠세비츠키/ 보스턴 심포니 (1950년 녹음)**  
쿠세비츠키는 보스턴 심포니의 황금시대를 일구었던 장본인이었다. 그가 1950년에 녹음한 '피터와 늑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손꼽히는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낭송을 맡았다. 같은 해 녹음된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은 그가 당시를 대표하던 시벨리우스 스페셜리스트였음을 강렬하게 증명한다. 보스턴 심포니 현악파트의 따뜻한 음색을 느끼게 되는 그리그의 아름다운 소품 '지나 봄'이 함께 수록.



8.111288  
**바흐 &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야사 하이페츠(vn)/ 알프레드 발렌슈타인 외/ LA 필하모닉 외 (1946-53년 녹음)**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하이페츠는 주로 베토벤 이후의 로맨틱 레퍼토리를에서 탁월한 기교를 자랑해왔지만, 바흐와 모차르트와 같은 아담한 작품들에서도 뛰어난 음악성을 드러내곤 했다. 본 음반에는 1953년에 녹음된 바흐의 협주곡 1,2번과 1951년에 녹음된 모차르트의 협주곡 5번, 마지막으로 자신의 1인 2역을 해내었던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46년 녹음)이 함께 수록되었다.



8.111294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7번,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외 아르투르 & 카를 울리히 슈나벨(pf)/ 존 바비롤리 외/ 런던 심포니 (1934-46년 녹음)  
1934년 5월 애비로드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슈나벨의 모차르트 협주곡 27번 녹음은 거장의 동곡 첫 녹음이었음에도 원테이크로 훌륭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당대 녹음으로는 드물게도 사운드가 훌륭하며 느린 악장에서 드러나는 슈나벨의 서정적인 연주 역시 빼어나다. 1936년에 녹음된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은 아들 카를 울리히와 함께 협연한 기록이다.



8.111251  
**베토벤:**  
바이올린소나타 1-4번, 조셉 퍼치스(vn) 아르투르 발샹(pf) (1952년 녹음)  
조셉 퍼치스(1899-1997)는 미국 출생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가장 먼저 세계 음악계의 정상에 올랐던 연주자로 평가된다. 1923년부터 40년까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활약했고, 이후 솔리스트로 변신하여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콘서트와 실내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다. 1952년 뎡카를 통해 선보였던 베토벤 소나타전집은 연주와 음질 양면 모두에서 오래도록 하이 스탠더드로 꼽혀왔던 연주다.



8.111118  
**쇼팽:**  
24개의 전주곡, 발라드 1-4번, 즉흥환상곡 벤노 모이세이비치(pf) (1938-52년 녹음)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하였던 러시아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벤노 모이세이비치. 그가 연주하는 쇼팽 시리즈의 두 번째 음반으로 24개의 전주곡 전곡(1949년 녹음)과 발라드 전곡(1939년, 1947년 녹음), 그리고 즉흥환상곡(1952년 녹음)을 함께 담았다. 특히 전주곡 전곡은 그가 남긴 쇼팽 레코딩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의 하나로 오래도록 연구에 회자되어왔던 연주다.



8.111299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30-32번, 글렌 굴드(pf) (1956년 녹음)  
1955년 바흐의 골드베르크변주곡으로 해성처럼 등장했던 글렌 굴드는 이듬해 6월 녹음된 베토벤의 후기 소나타 3편을 선보이면서 다시 한번 음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빠른 스피드(하지만 명료함과 정확성을 놓치지 않았다)와 반복을 모조리 생략했던 이 연주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는 화제의 연주들이다.

## DACAPO Daca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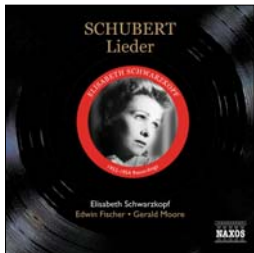
www.dacapo-records.dk



8.226065  
**닐센:** 바이올린소나타 1,2번,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 온 예스메, 투에 라우트름(vn)/ 엔스 엘베키에르(pf)  
후기 낭만음악의 전형을 따르고 있는 두 편의 바이올린소나타는 닐센의 뛰어난 선율감각이 잘 발휘된 작품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적절한 역할분담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보다 원숙기의 작품들인 두 편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은 작곡가만의 독특한 개성이 보다 짙게 배어나오는 작품들이다. 특히 전주곡, 테마와 변주 Op.48은 파가니니나 이차이 등의 무반주 작품들과 어깨를 견줄 만하다.



8.226059  
**뇌르고르:** 현악사중주 7,8,9,10번 크로거 현악사중주단  
페르 뇌르고르(1932년생)는 현재 덴마크 음악계에서 큰 위치를 점하고 있는 원로 작곡가다. 초기에는 시벨리우스와 닐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60년대 이후부터는 음열주의에 기초한 보다 모던한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였다. 본 음반에 수록된 4곡의 현악사중주 중에서 '밤은 연기처럼 내려오다'라는 타이틀의 8번과 연주를 맡은 코로거 사중주단을 위해 특별히 완성한 작품인 10번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8.111287  
**슈베르트:** 리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sop)/ 에드빈 피셔 & 제랄드 무어(pf) (1952-54년 녹음)  
R 슈트라우스, 모차르트 등의 독일 오페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슈바르츠코프는 독일 리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본 음반에는 1952년 에드빈 피셔의 반주로 녹음한 슈베르트의 명가곡들이 수록되었다. '음악에', '물레 잣는 그레첸', '물 위에서 노래함', '봄에' 등을 노래하였으며, 카라얀이 반주한 '피델리오' 중의 드라마틱한 아리아 'abscheulicher!'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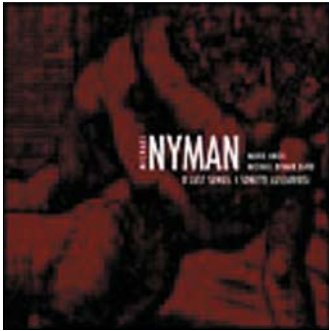


8.111291-92  
**푸치니:** 나비부인 데 로스 앙헬레스, 디 스테파노, 곱비 외/ 잔난드레아 가바체니/ 로마 오페라 (1954년 녹음)  
1954년 로마에서 녹음된 푸치니의 '나비부인'은 데 로스 앙헬레스의 대표반의 하나로 손꼽힌다. 5년 뒤 가브리엘레 산티니의 지휘로 유시 비올링과 함께 녹음했던 음반도 인기가 높지만, 로스 앙헬레스의 보다 젊은 목소리와 디 스테파노의 감동적인 핑커튼, 곱비의 성격적인 사플리스를 들을 수 있는 이 음반 역시 크게 호평을 받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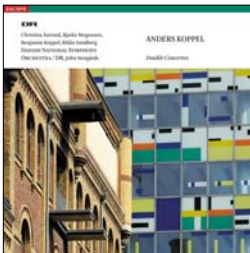
## MN Records

www.mnrecords.com

MN Records는 칸느 영화제 대상수상작인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로 국제적인 영화음악작곡가로 급부상한 영국 작곡가 마이클 니만이 설립한 독립 레이블입니다.



MNRCDD114  
**니만: 8개의 관능적인 노래** 마리 앤젤(sop)/ 마이클 니만 밴드  
8개의 관능적인 노래'는 르네상스시대의 시인 피에트로 아레티노의 'sonetti Lussuriosi'를 텍스트로 완성한 마이클 니만의 최신 성악곡이다. 제목 그대로 음탕하고 노골적인 남녀상열지사에 가까운 원작의 내용이 색소폰이 중심이 되는 니만 특유의 색채적인 사운드와 감각적인 선율을 통해 한층 더 섹슈얼한 이미지로 재탄생하였다. 묘한 관능미를 보여주는 마리 앤젤의 절창 또한 강한 인상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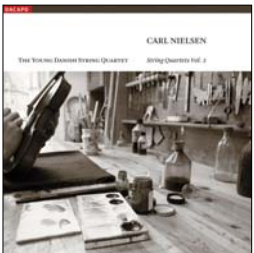
8.226055  
**코펠:** 2개의 이중협주곡(바이올린+어코디언, 색소폰+피아노) 여러 연주자들/ 온 스토르그르드 /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안드레우스 코펠(1947년생)은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작곡가다. 본 음반에 수록된 두 편의 이중협주곡들은 독특한 악기 조합에서 우선 눈길을 끈다. 바이올린과 아코디언이 펼치는 날카로운 사운드의 대결을 담은 첫 협주곡도 훌륭하지만, 재즈와 클래식식의 진정한 크로스오버를 보여주는 색소폰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은 필청을 권하는 개성만점의 매력작이다.



8.226069-71  
**모차르트:** 오페라 <루치오 실라> KV.135 로타르 오디니우스, 지모네 놀트 외/ 아담 피셔/ 덴마크 라디오 신포니에타  
<루치오 실라>는 모차르트의 7번째 오페라로 불과 16세때에 완성한 작품이다.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대 로마의 독재자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오페라는 어린 소년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뛰어난 음악적 완성도를 보여주지만, 작곡가의 다른 걸작 오페라에 가려 그동안 평가여주는 색소폰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은 필청을 권하는 개성만점의 매력작이다.



6.220525 [Hybrid-SACD]  
**랑고르:** 교향곡 1번 '산의 목가' 토마스 다우스고르/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교향곡 1번은 루에드 랑고르(1893-1952)가 불과 17세의 나이로 완성한 대작이다. 당시 많은 이들이 연주시간 한 시간간 넘는 이 거대한 작품을 연주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1913년 베를린 필에 의해 초연되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대단했다고 한다. '산악 전원곡'이라는 타이틀의 이 작품에는 차이코프스키, 바그너, 브루크너의 영향과 더불어, 2년 뒤에 초연된 R 슈트라우스의 알프스교향곡과도 정서적으로 유사하다.



6.220522 [Hybrid-SACD]  
**닐센:** 현악사중주 Vol.2 (Op.5 & Op.14) 더 영 데니쉬 현악사중주단  
지난 1집으로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었던 더 영 데니쉬 퀸텟이 닐센 현악사중주의 두 번째 음반을 내놓았다. 1890년 베를린 체류시절 완성된 Op.5는 당시 독일 음악계의 주류 작곡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작품으로, 낭만음악의 전통에 충실한 초기 닐센음악의 전형을 보여준다. 1898년에 완성된 Op.14는 그리그에게 헌정된 작품으로, 닐센의 현악사중주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연주되는 작품이다.



## SDG [Soli Deo Gloria]

www.monteverdi.co.uk/recordings



SDG144

바흐 칸타타 순례 Vol. 25  
부활절 후 5번째 주일과 승천절 후 주일을 위한 칸타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BWV86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도다 BWV87  
모든 나의 행동에 BWV97  
그들이 너희를 추방하리라 BWV44  
주여, 나는 당신을 원하나이다 BWV150  
그들이 너를 추방하리라 BWV183

2CD SET

캐서린 퍼지, 조안 런(sop)/ 로빈 타이슨, 다니엘 테일러(alt)/ 스티브 데이비슬림, 폴 애 그뉴(te)/ 스티븐 로지스, 파나이오티스 이코노모우(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바흐 칸타타 순례 시리즈의 17번째 음반. CD 1은 바흐의 미사 B단조와 관련된 도시인 드레스덴의 안넨 교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담은 것이다. BWV86은 종교적인 텍스트를 음악적으로 적절히 표현해내었던 바흐의 작곡기교가 가장 훌륭히 발휘된 칸타타의 하나다. 1734년에 완성된 BWV97은 하인리히 이자크의 유명한 노래 '인스부르크여, 나는 떠나네'의 선율을 양 단 악장에 차용한 작품이다. CD 2는 남 잉글랜드의 고도 서분에서 녹음되었다. 승천절 후 주일을 위한 두 칸타타 BWV44와 183, 교회절기와 무관한 BWV150이 수록되었으며, 바흐의 막내아들인 요한 크리스티안의 칸타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도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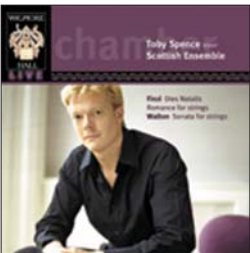
## Wigmore Hall Live



WHLive 0023  
미에치슬라브 호르조프스키 1991년 리사이틀 라이브  
모차르트: 소나타 K.570, 베토벤: 템페스트 소나타, 슈만: 아라베스크 외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감동적인 실황음반. 호르조프스키는 파블로 카잘스, 아돌프 부슈 등의 역사적인 거장들과 함께 연주활동을 했던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연주자였다. 1993년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그는 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활동을 쉬지 않았다. 본 신보는 그의 나이 99세 되던 1991년의 실황으로 정식으로 발매된 최고령 연주자의 음반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따금 나타나는 더듬거림과 미스 터치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한 노대가의 불굴의 정신을 담은 이 음반의 감동은 너무나도 크다.



WHLive 0022  
크리스틴 브루워 & 로저 비블스  
리트 리사이틀  
바그너: 베젠통크 리트, 브리튼: 카바레 송, 카타: 칸타타, 볼프: 리트  
미국 출신의 크리스틴 브루워는 오페라와 리트 양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정상급 소프라노다. 하이페리언의 슈베르트 에디션에도 참여했으며, 모차르트, 바그너, R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들에서 출중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본 음반은 2007년 9월 8일의 리사이틀을 온전히 수록한 것으로 자신의 장기와도 같은 바그너와 볼프, 흑인영가를 차용한 미국 작곡가 카터의 칸타타, 대중음악을 접목한 브리튼의 카바레 송 등의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WHLive 0021  
핀치: 디에스 나탈리스, 현을 위한 로망스, 월튼: 현을 위한 소나타  
토비 스펜스(te)  
조나선 모턴  
스코티시 앙상블  
영국이 사랑하는 두 작곡가 제랄드 핀치와 윌리엄 월튼의 현을 위한 아름다운 작품 두 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차분한 서정미가 인상적인 핀치의 로망스와 고전적인 정형미가 돋보이는 월튼의 소나타를 스코티시 앙상블의 정갈한 연주로 감상하게 된다. 갓 태어난 아기가 서서히 세상에 물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핀치의 성악곡 '디에스 나탈리스'를 노래하는 테너 기대주 토비 스펜스의 깨끗한 미성도 매력적이다.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

MD&G

www.mdg.de



312 0344-2  
로입케: 피아노소나타, 오르간소나타  
클라우디우스 탄스키(pf), 마르틴 잔더(org)  
리스트의 제자였던 올리우스 로입케(1834-58)는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불과 24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피아노소나타는 로맨틱한 정서와 현란한 초절기교가 공존하는 작품. 웅대한 스케일과 종교적인 열정을 결합한 오르간소나타는 각종 콩쿠르의 과제곡으로 애용되는 작품. 독일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던 이 음반은 한동안 카탈로그에서 사라졌다가 새롭게 재발매되었다.



603 1506-2  
카르크-엘러트: 무반주 색소폰을 위한 소나타와 카프리스  
크리스티안 페터스(sax)  
카르크-엘러트의 무반주 색소폰을 위한 카프리스는 그동안 교습용 음악으로만 평가되어왔지만, 크리스티안 페터스의 뛰어난 연주는 감상용으로도 손색없는 작품임을 입증해준다. 쿠랑트, 치아코나, 지그와 같은 옛 춤곡들에서 랙, 탱고, 쿠바나와 같은 근대의 다양한 춤곡들이 망라된 작품이며, 4가지 음역의 색소폰(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소노리티가 흥미롭다.



644 1505-2  
비에르네: 피아노 오중주, 현악 사중주  
슈피겔 현악사중주단 + 레벤테 켄데(pf)  
루이 비에르네(1870-1937)는 프랑스 오르간악파를 대표하는 작곡가지만, 교향곡, 실내악 등 여러 장르에 걸쳐서 뛰어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현악 사중주는 청년기에 완성한 습작성격의 작품이지만, 초연 당시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이끌어내었던 작품이다. 피아노5중주는 40대의 원숙이에 완성한 작품으로 프랑스 근대 실내악 레퍼토리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뛰어난 작품이다. 전사한 자식에 대한 절절한 슬픔을 표현한 이 작품은 스승 프랑크의 동일 장르 작품을 능가하는 웅건한 스케일과 뛰어난 악곡구성을 보여준다. 프랑스근대음악과 실내악 애호가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642 1508-2  
시벨리우스, 하차투리안: 바이올린협주곡  
사라사테: 카르멘환상곡  
게르하르트 타슈너(vn)  
한스 슈미트 이세르슈테트 외  
NDR 심포니 외  
20세기 중반 독일을 대표했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게하르트 타슈너의 기록들을 재발굴 중인 MDG의 4번째 음반. 하이페츠를 방불케하는 쾌속의 연주를 보여주는 시벨리우스협주곡은 1956년 헤르베르트 잔드베르크/WDR 심포니와의 협연. 타슈너는 하차투리안의 협주곡을 서방에 소개한 장본인으로 1955년 한스 슈메르트-이제르슈테트/NDR 심포니와의 녹음은 본작의 역사적인 레퍼런스로 손꼽힐만하다.



946 1514-6 [Hybrid-SACD]  
투르느미르:  
데 데움, 아베 마리스 스텔라, 5개의 소품들 외  
베를린 동칸토라이  
안드레아스 실링(org)  
샤를 투르느미르(1870-1939)는 근대 프랑스 오르간 음악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작곡가다. 본 음반에는 작곡가가 남긴 즉흥곡 형태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데데움, 아베 마리스 스텔라, 빅티메 파스칼리 등 그레고리안 찬트의 선율에 기초한 즉흥곡들의 경우 베를린 동칸토라이가 노래하는 찬트의 선율과 안드레아스 실링의 오르간 연주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끔 배려하였다.



DYNAMIC

www.dynamic.it



CDS 429

**롤라: 협주곡과 교향곡**

**마리오 카르보타(fl)/ 디니스 잔케타(basset horn)/ 마시밀라노 칼디/ 카메라 밀라노 클래식**

알레산드로 롤라(1757~1841)는 18/9세기 이탈리아 기악음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작곡가였으며,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걸출한 비르투오조로 명성이 높았다. 본 음반은 그가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기악작곡가였음을 증명한다. 우아하고도 창의적인 선율들로 채워진 교향곡 D장조와 정형미가 돋보이는 교향곡 Bb장조, 그리고 모차르트를 연상케 하는 경쾌한 악상과 독주악기들의 화려한 기교가 어우러진 플루트협주곡과 바셋 혼 협주곡이 함께 수록되어있다. 바셋 혼 협주곡을 제외한 3작품은 최초로 레코딩되는 것들이다.



CDS 86

**비오티: 바이올린협주곡 1-2-19번**

**프랑코 메체나(vn, cond)**

**심포니아 페루지나, 비오티 챔버 오케스트라 외**

조반니 바티스타 비오티(1755~1824)는 뛰어난 바이올린 비르투오조로 바이올린의 근대적 주법을 확립하여 후대 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그가 남긴 29곡의 바이올린협주곡은 각종 콩쿠르나 입시의 과제곡으로 단골로 이용되는 작품들이지만, 의외로 구할 수 있는 음반은 많지 않은 편이다. 아카르도의 제자인 이탈리아의 중견 바이올리니스트 프랑코 마체나가 독주와 지휘를 겸하였다.



CDS 460

**삼마르티니: 교향곡과 서곡**

**로베르토 지니**

**카메라 밀라노 클래식**

음반에 수록된 9편의 교향곡(서곡)은 모두 1724~39년 사이에 완성된 작곡가의 초기작들로, 급-완-급의 세 파트로 구성되는 이탈리아인 서곡이 고전교향곡의 형태로 진화해나가는 중간 단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탈리아 고전 작곡가들의 관현악곡을 전문적으로 연주하기 위해 결성된 악단인 카메라 밀라노 클래식의 깔끔한 앙상블은 초기 교향곡의 단아한 매력을 한결 돋보이게 만든다.



CDS 566/1-2

**로시니: 이탈리아의 터킨**

**마르코 빈코(셀피)**

**알레산드라 마리아벨리(피오릴라) 외**

**안토넬로 알레만디 오케스트라 하이트 디 볼차노 에 트렌토**  
2007년 8월 페사로의 로시니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실황을 수록한 음반. 로시니 전문 지휘자 알레만디의 지휘와 본토 성악가들의 뛰어난 노래를 통해 로시니 특유의 발랄한 선율들이 경쾌하게 펼쳐진다.



IDIS 6538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

**라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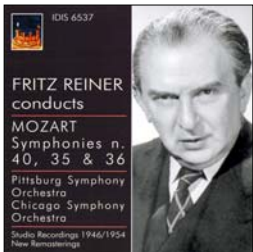
**피아노협주곡(피아노-번스타인)**

**레너드 번스타인(pf, cond)**

**보스턴 심포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번스타인 마니아라면 이 음반을 주목하시라. 청년 레니가 지휘자에 앞서서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역사적인 녹음이 새롭게 복각되었다. 특히 라벨의 협주곡에서는 지휘와 피아노독주를 겸한 번스타인의 다재다능함을 만나볼 수 있다.



IDIS 6537

**모차르트: 교향곡 35, 36, 40번**

**피츠츠 라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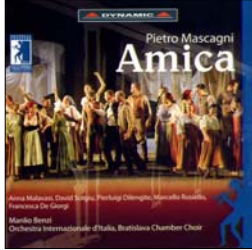
**피츠버그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본 음반에 수록된 3편의 모차르트 교향곡들은 거장 특유의 엄정한 해석과 강렬한 카리스마가 고전 교향곡 레퍼토리들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함을 잘 보여준다. 교향곡 40번과 35번 '하프너'는 그가 1938년부터 48년까지 음악감독으로 재직했던 피츠버그 심포니를 지휘한 것이며, 교향곡 36번 '린츠'는 그가 시카고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바로 다음 해인 1954년에 남긴 기록이다. 녹음연대에 비해 음향상태가 양호하다.



CDS 573

**조르다노: 마르첼라**

마스카니, 레온카발로와 더불어 이탈리아 베리조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움베르토 조르다노는 '안드레아 세니에', '페도라' 양대 걸작 오페라로 기억되는 이름이다. 1907년 라 스칼라에서 초연되었던 '마르첼라'는 2차 대전의 여파로 1938년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무대에 오르지 못한 작품이지만, 최근에 복사본이 재발견됨으로써 다시금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본 음반은 작품의 초연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7년 8월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 중에 펼쳐졌던 공연 실황을 옮긴 것으로 이 작품의 최초 녹음에 해당한다. 작품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Dolce notte'는 전설의 테너 티토 스키파가 애창했던 빼어난 아리아다.



CDS 574

**마스카니: 아미카**

데뷔작이기도 했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초연부터 지금까지 워낙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에 마스카니가 작곡한 16편의 다른 오페라들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905년에 초연된 2막 오페라 '아미카'는 마스카니가 프랑스 대본으로 완성한 유일한 오페라라는 희소성이 있다. 본 CD에 수록된 2007년 8월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 실황은 이 오페라의 진가를 재발견하게끔 만든 역사적인 무대였으며, 이후 여러 오페라 극장에서 이 작품을 다시금 무대에 올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과거 이탈리아어 버전은 한번 녹음된 적이 있었지만, 오리지널 프랑스어 버전의 녹음은 이 음반이 처음이다.



CDS 548/1-2

**타르티니: 바이올린협주곡 Vol.14**

이탈리아의 실력파 시대악기 양상불인 라르테 델라르코가 다이 나막을 통해 진행 중인 타르티니 바이올린 협주곡 전집의 14번째 음반. 18세기에 활약했던 여러 이탈리아의 작곡가들 중에서도 바이올린에 가장 특화되었던 작곡가가 바로 타르티니였다. 그는 이 악기를 위해 135편의 협주곡과 200여 편의 소나타를 완성하였다. 본 신보에는 작곡가의 협주곡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자 감미로운 안단테 악상이 매력적인 G장조협주곡 D.78이 포함되었다. 또한 수록된 11곡의 협주곡들 중에서 D.7, 31, 33, 65, 68, 102, 103, 107의 8편은 본 음반을 통해 최초로 녹음되는 작품들이다.



CDS 556

**사랑의 기쁨을 비롯한 이탈리아 가곡집**

마르티니의 너무나 유명한 가곡 '사랑의 기쁨', 토스티의 '4월', 스카를라티의 '비올레테'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가곡들을 일본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아키코 나카지마가 노래하였다. 나카지마는 오스트레일리아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함부르크 슈타츠오퍼, 로알 오페라 코벤트 가든, 빈 콘체르트하우스, 상젤리제 극장 등의 정상급 무대를 두루 누비며 활약 중인 가수다. F.M. 피아베의 시에 오베르, 카노니, 메르카단테, 리치, 토마, 베르디가 하나씩 곡을 붙인 연가곡 시리즈는 본 음반을 통해 최초로 녹음되는 작품이다. 가곡애호가들과 성악도들을 위한 추천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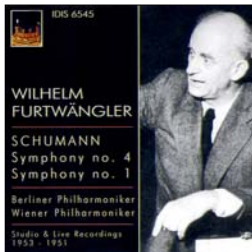


IDIS 6540

**하이페츠가 연주하는**

**브람스 바이올린소나타**

1935년에 엠마누엘 바와 협연한 브람스의 소나타 1, 2번과 1950년 요절한 천재 피아니스트 윌리엄 카펠의 반주로 녹음한 소나타 3번을 하나의 음반으로 묶었다. 이들 브람스의 소나타에서는 하이페츠가 가공할 만한 스피드와 눈부신 조절기교 뿐만 아니라 섬세함과 따뜻함을 함께 만들어내었던 바이올리스트였다는 점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든다. 특히 윌리엄 카펠과 함께 호흡을 맞춘 소나타 3번은 두 전설의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많은 애호가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연주이다.



IDIS 6545

**슈만: 교향곡 1, 4번**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푸르트벵글러가 1950년대에 녹음한 슈만의 두 교향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1953년 5월 14일 베를린 필을 지휘하여 녹음한 교향곡 4번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동곡 최고의 명연으로 손꼽히는 역사적인 연주. 1951년 10월 29일 뮌헨에서 빈 필과 함께한 교향곡 1번의 실황녹음 역시 거장 특유의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진 열연이다. 두 연주 모두 역사적인 명연이다. 베르만의 걸려풀한 연출력과 정교한 기교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소중한 기록이다.



IDIS 6539

**라자르 베르만 유족의 특별한**

**허락을 통해 출시된 특별한 음반**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960, 클레멘티**

**소나타 Op.40-2**

**라자르 베르만**

강력한 타건과 현란한 초절기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구소련 출신의 거물 피아니스트 라자르 베르만이 1972년 11월 12일 밀라노에서 가졌던 리사이틀의 실황 녹음이 유족들의 특별한 허락을 통해서 정식 음반으로 출시되었다. 베르만의 걸려풀한 연출력과 정교한 기교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소중한 기록이다.



CDS 486/1-10

**보케리니/바치니/베르디/**

**푸치니/찬도나/레스피기/**

**말리피에로 : 현악사중주**

보케리니부터 말리피에로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현악사중주 집대성. 고전시대 이후부터 이탈리아 음악은 철저히 성악중심으로 바뀌었지만, 바로크시대 화려하게 꽃피웠던 기악음악의 명맥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 본 음반에는 각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현악사중주들을 집대성하였다. 새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 차이코프스키: 발레 <잠자는 미녀>

### 로열 발레의 최고의 스타, 알리나 코조카루의 첫 전막발레 영상물

루마니아 출신의 알리나 코조카루는 영국의 로열 발레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발레리나다. 특히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가 아니라 관객들이 마치 여동생을 대하듯 좋아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영상물로 만나기는 힘들었다. 대스타가 되기 이전에 <호두까기 인형>에 클라라로 출연한 것이 있었지만, 클라라에게 춤을 별로 주어지지 않은 프로덕션이었다. 게다가 로열 발레 경영진이 공연 실황을 상업용으로 발매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바람에 최신 실황들이 소개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로열 오페라와 발레를 거느린 코벤트가든이 DVD의 중요한 제작사인 Opus & Arte를 인수하고 그간 BBC방송용으로 촬영한 자료에서 엄선된 실황들을 발매하면서 드디어 코조카루의 춤도 우리 안방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잠자는 미녀>가 선택된 것은 더욱 의미 있다. 차이코프스키 작곡, 마리우스 프티파 안무의 이 발레는 고전발레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발레의 전형을 가장 고품격으로 구현하기 때문이다. 코조카루는 오로라 공주 역할을 맡아 어린 소녀의 발랄함(1막), 왕자의 환상 속의 우아한 여인(2막), 결혼식 신부(3막)까지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 [ 보충 자료 ]

○ <잠자는 미녀>는 '고전발레의 제왕'으로 불리는 마리우스 프티파가 생애 최고의 역작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음악의 세밀한 구성까지 일일이 차이코프스키에게 주문하여 만든 작품이다. 사실상 완벽한 작품으로 안무를 미리 구상한 후에 음악을 엮어나간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 발레는 하나의 막에 해당하는 거창한 프롤로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프롤로그는 왜 오로라 공주가 카바로스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1막은 이로부터 16년이 경과한 후이고 2막과 3막은 오로라 공주가 긴 잠에 빠진 후 무려 10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 런던 코벤트가든의 로열 발레는 영국 발레의 상징이다. 무대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것이 로열 발레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다. 알리나 코조카루는 아담한 키와 관객과의 친화력에 힘입어 이런 로열 발레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무용수로 알려져 있다. 루마니아 출신이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발레에서 활약하다가 로열 발레로 옮긴 케이스지만, 워낙 로열 발레의 주역급에는 토종 영국 출신이 거의 없고 외국인이 대부분이므로 크게 특이할 것은 없다. 이 영상물의 주요 배역을 보더라도 왕자 역할을 맡은 페데리코 보넬리는 이탈리아 출신이며, 라일락 요정 역의 마리아넬라 누네즈는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OpusArte DVD OA R3105D

## 모차르트: 오페라 <미트리다테, 폰토의 왕>

### 14세의 모차르트가 작곡한 첫 걸작 오페라 세리아

모차르트가 조숙한 천재였는데 오페라에서는 14세에 작곡한 <미트리다테>가 그 증거다. <바스티안과 바스티엔>을 먼저 작곡했지만 그것은 목가풍의 소극인 반면 <미트리다테>는 밀라노에서 작곡한 정통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이기 때문이다. 헨델이나 비발디의 오페라의 분위기와 달은 것은 바로크 시대의 산물인 오페라 세리아 양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미트리다테는 로마와 싸우는 폰토의 왕이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파르나체는 로마와 내통을 꾀하는 기회주의자이고 작은 아들 시파레는 충성을 다한다. 그런데 미트리다테의 젊은 약혼녀 아스파시아가 왕 대신 시파레를 사랑하는 바람에 왕은 두 아들 모두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부자관계와 복잡한 애정구도는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인가? 오페라 세리아의 장중한 구도를 잘 살린 동시에 바로크적인 허장성세를 상징하는 독특한 의상으로 화제를 보았던 1993년 로열 오페라 실황이며 그레이엄 픽이 연출을 맡았다. 브루스 포드, 요헨 코발스키, 앤 머레이 등 가수들의 노래는 하나같이 절찬을 받았다.

### [ 보충 자료 ]

○ [1막] 로마와의 전투에 출정한 폰토의 국왕 미트리다테가 전사했다는 소문이 나 있다. 작은아들 시파레는 이런 와중에서 조국을 지키고자 전력을 다하지만 큰아들 파르나체는 로마와 내통하고 부왕의 젊은 약혼녀 아스파시아를 유혹한다. 그러나 미트리다테는 살아서 귀환한다. 사실 그는 두 아들을 시험하고자 거짓정보를 흘린 것이다.

○ [2막] 미트리다테는 이즈메네라는 파르티아의 공주와 파르나체를 결혼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사랑이 식은 파르나체는 그녀에게 싸늘하게 대한다. 혹은 파르나체와 자기 약혼녀 아스파시아가 사랑하는 것 아닌가 미트리다테가 의심하지만 아스파시아는 시파레를 연모하고 있다. 미트리다테는 출정명령을 거역한 파르나체를 체포하는데, 파르나체는 배신한 것은 자신만이 아니며 시파레도 아버지의 연인을 가로챘다고 고한다. 미트리다테는 격분한다.

○ [3막] 미트리다테는 다시 로마와의 전투에 출정하고 아스파시아는 독배를 마셔야 한다. 그러나 시파레가 독배를 빼앗고 부친을 구하려 전장으로 달려간다. 시파레에게 구출된 미트리다테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아들의 충정을 알고 왕위와 아스파시아를 주겠다고 한다. 큰아들 파르나체도 회개하여 로마군의 배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을 들으며 미트리다테는 숨을 거둔다. 바로크 오페라 세리아서는 '세리아'라는 의미와 달리 해피엔딩이 많지만 <미트리다테>는 이처럼 타이틀 롤이 죽는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정통비극이다.

· Opus Arte Blu-ray Dis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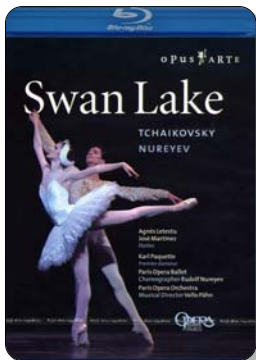
차세대 HD미디어 블루레이(Blu-ray)란?

블루레이 디스크는 650nm(나노미터) 파장의 적색 레이저를 사용하는 DVD에 비해 더 짧은 파장의 405nm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하기에 블루레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4.7G 용량의 DVD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50G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프로페셔널 레코딩은 물론, 영화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선명한 고화질 영상과 손실 없는 사운드까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고안된 차세대 미디어입니다.

**\*초 고선명 HD화질:** SD급(720x480) DVD에 비해 약 6배가 많은 1,080x1920 화소를 갖는 블루레이는 FULL HD 영상을 제공합니다. DVD에 담긴 영상의 정보량이 1.5Mbps수준인데 비해 블루레이에 담긴 영상 정보량은 초당 20M~35Mbps에 이를 정도로 배우들의 숨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하면서도 영상 다이내믹레인지가 뛰어난 고품위 영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손실 없이 원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고품질 사운드:** 블루레이 디스크에 담긴 음원은 무손실 PCM 신호를 기본으로 합니다. 초당 평균 전송량이 약 2M~18Mbps에 이르기 기존 디지털 640kbps와 DTS 1.5Mbps에 비해 얼마나 많은 정보량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질의 투명성과 공간감에서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고, 배우들의 목소리 톤이 명확해져 영화나 공연 타이틀 감상 시 한층 자연스러운 현장감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부가기능의 쌍방향 인터랙티브:** 블루레이는 재생 중 팝업메뉴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퀴즈게임은 물론, 배우나 감독 등의 연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OpusArte DVD BD7001D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누레예프의 섬세한 터치로 새로운 감각을 획득한 발레의진정한 고전

〈백조의 호수〉는 누구나 인정하는 고전 발레 최고의 걸작이다.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답고 리드미컬한 음악,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가 꾸며 놓은 고풍적 안무, 그리고 독일 전설에서 취재한 몽상적 사랑에 대한 향수까지! 러시아에서 서구에 망명한 20세기 최고의 남성 무용수 루돌프 누레예프는 안무가로도 탁월했으며 특히 러시아 고전발레를 세련된 무대로 재창조하는 작업에 뛰어났다. 〈백조의 호수〉는 1964년 빈 국립 발레단과 처음 작업한 이래, 예술감독을 맡았던 파리 오페라 발레를 위해서는 1984년에 새로운 프로덕션을 만들었다. 이 프로덕션은 누레예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꾸준히 공연되고 있으며 본 영상물은 2005년 파리 바스티유 극장 실황이다. 〈백조의 호수〉를 지크프리트 왕자의 의식 속에서 전개되는 현실과 비현실의 갈등으로 그려냈으며 비극적 장중함이 공연 전반을 지배한다. 파리 오페라 발레 최고의 스타 커플이자 실제로도 부부 사이인 아녜스 레테스퇴, 호세 마르티네즈가 주역을 맡았으며 누레예프의 오랜 조력자였던 이탈리아의 에치오 프리제리외와 프랑크 스카르치아피노가 무대와 의상을 맡았다.



OpusArte DVD BD7002D

모차르트: 마술피리

2003년 1월 27일 모차르트의 생일을 기념하는 런던 코벤트가든 극장의 실황이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프로덕션과 캐스팅으로 신선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파랗게 물든 무대는 황홀한 동화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으며, 배역마다 공을 들인 의상은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이어준다. 백인으로 분한 모노스타토스, 인간적인 자라스트로, 채플린 스타일의 파파게노를 파격적인 설정 속에 음악은 철저하게 전통을 따르고 있다. 젊음이 넘치는 남녀 주인공 하르트만과 뢰쉬만, 현재 최고의 리릭 바리톤으로 불리는 킨리사이드 등 오페라는 걸출한 성악가들의 빼어난 아리아와 연가를 담고 있다. 5.1채널의 황홀한 사운드 속에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마법의 세계가 펼쳐진다.

www.storyvillejazzdv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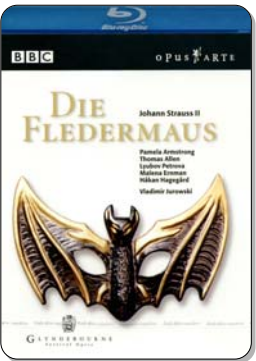
OpusArte DVD BD7003D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마법과 사랑의 망상을 그린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천재적 예술가 조지 발라신이 안무를 맡고 펠릭스 멘델스존이 음악을 작곡한 이 작품은 흥미를 보장하는 인기작품이다. 북서태평양 발레단의 모습은 새롭게 개축한 런던의 새들러스 웰즈 Sadler's Wells 극장에서 1999년 2월 라이브로 녹화된 것이며, 스튜어트 커쇼가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가 연출상을 수상한 이 작품에 함께 하고 있다.

‘매혹적이고 친숙해지기 쉬운...’ – 가디언 가이드

‘독특한 스타일과 재치있는 유머가 넘치고, 완벽하게 조절된 속도와 절묘하게 안무가 어우러진 작품. 친숙한 스토리를 유쾌하게 영상으로 재현한 이 작품은 즐거움으로 발레광들의 숨을 멎게 할 것이다.’ – WHAT DVD IMZ 댄스 스크린 1999 베스트 TV 무대 연출 재현 부문 수상.



OpusArte DVD BD7004D

요한 슈트라우스 II: 박쥐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오페레타의 가장 환상적인 무대!

오페레타를 경가극(輕歌劇), 즉 가벼운 오페라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야말로 그 의도에 들어맞는 최고의 명작이다. 빈 부유층의 위선을 통렬하게, 그러나 인간미에 기초한 해학으로 풀어낸 이 오페레타는 귀족과 평민, 부자와 빈자, 교도소장과 죄수가 악의없이 속고 속이다가 모든 것이 돌고나고 한바탕 화해로 풀어낸다는 이야기를 빈 왈츠의 유려한 선율 속에서 펼쳐낸다. 2003년 글라인드본 여름 페스티벌 실황인 이 영상물은 개축한 축제극장의 첨단 회전장치가 효과적으로 활용된 최상의 무대는 물론이고 완벽한 화질과 음질을 제공한다. 토마스 알렌(아이젠슈타인), 파멜라 암스트롱(로잘린데), 호칸 하게고르드(팔케)의 호화 캐스팅은 물론이고 현재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인 러시아 출신의 지휘자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의 독특한 매력 이 돋보인다.



OpusArte DVD BD7005D

체칠리아 바르톨리 & 브라이언 터펠 글라인드본 콘서트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실력가 가수들인 브라이언 터펠과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유서깊은 글라인드본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진 듀오 콘서트의 생생한 실황으로 우리나라의 정명훈씨가 런던 필하모닉을 지휘하여 반주를 맡았다. 콘서트 형식이지만 모차르트와 루치니, 도니제티, 헨델 등의 아리아와 이중창들을 실제 오페라 공연에서처럼 몸동작을 섞은 풍부한 연기력과 잘 다듬어진 목소리로 최상급의 노래들을 들려주며, 두 저음 가수의 음색의 어울림도 무척이나 듣기 좋다.



OpusArte DVD BD7006D

베르디: 일트로바토레

엘리아 모친스키의 새로운 로열 오페라 하우스 연출작 속에서 호세 쿠라가 베르디의 불꽃처럼 열정적인 오페라의 화려한 스타 캐스트를 리드한다. 이 작품은 테아트르 레알 마드리드가 공동 제작하고, 유명한 이탈리아의 영화 디자이너 단테 페레티가 무대를 꾸몄다. 루나 공작 역은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가, 레오노라 역은 베로니카 빌라로엘이, 그리고 아주체나 역은 이본느 네프가 맡았으며, 카를로 리찌가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를 지휘한다.

*'4명의 주역 모두가 뛰어난 목소리를 들려준다...빌라로엘의 노래는 가슴에 사무치며, 네프는 일류의 목소리이다. 쿠라는 모든 필수적인 파우를 갖춘 남성적 하이-C의 목소리를 소유했음에도 아름다운 고요한 가창으로 네프를 보조하고 있다. ...호보로스토프스키는 가공할만하다... 현재 두 개의 다른 <일 트로바토레> 영상물이 있는데, 음악적 탁월함과 지적인 연출의 측면에서 어느것도 이것에 범접하지는 못하다.'*  
- 인터내셔널 레코드 리뷰



OpusArte DVD BD7007D

푸치니: 라보엠

잔카를로 델 모나코가 가장 돋보이는 라보엠을 연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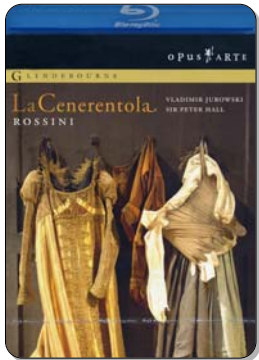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오페라 연출가 잔카를로 델 모나코는 20세기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아들이다. 화가로도 소질이 있었던 부친의 예술적 감각을 이어받아 프랑코 제피렐리를 잇는 정교한 무대 세트와 사실적인 연출로 명성을 얻었다. 델 모나코는 푸치니가 영화적인 감각을 지닌 작곡가라는 관점에서 연출을 시도했다. 무대는 지독할 정도로 사실적이며, 아름답고 감동적인 정경으로 알려진 3막조차도 한편으로 술집 밖에서 벌어지는 지저분한 상황까지 밀도 있게 묘사하고 있다. 2006년 3월의 테아트르 레알 마드리드의 최신 실황인 본 영상물에서 연출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신선한 출연진이다. 아킬레스 마차도(로돌포)와 인바 몰라(미미)는 베로나 야외극장 실황인 <리골레토> 실황 영상물(TDK)로 깊은 인상을 준 바 있는데 이번에는 푸치니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섬세한 가창력과 연기력은 기대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 가장 매력적인 무제타를 연기한 젊은 소프라노 라우라 조르다노,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마르첼로를 부른 바리톤 파비오 마리아 카피타누치를 발견하는 즐거움도 색다른 것이다. 가장 헤수스 로페즈-코보즈의 지휘 역시 더없이 감성적이다.

로시니: 라 체네렌톨라 (신데렐라)

룩산드라 도노세 (안젤리나)/ 루시아 치릴로(티스베)/ 라첼라 쉬란(클로린다)/ 나단 버그(알리도로)/ 루치아노 디 파스칼레(돈 마그니피코)/ 막심 미로노프(돈 라미로)/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시니의 흥겨운 선율과 함께 펼쳐지는 추억의 동화

'못된 계모'라는 그릇된 정형화와 '여자는 멋진 왕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쳐야한다'는 허황된 꿈을 세계 각국의 소녀들에게 안겨주었던 샤를 페로의 동화 '신데렐라' 그 공과야 어떠한 간에 백설 공주와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동화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로시니는 이 유명한 스토리에 기초하여 훌륭한 희가극 하나를 완성하였다. 계모가 아닌 계부가 악역을 맡고, 요정할머니가 아니라 철학가 알리도로가 안젤리나(신데렐라)를 꽃단장시키는 것은 원작동화와 다르지만, 기본적인 이야기의 골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로시니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과 유머감각이 작품 전체에 가득하며, 특히 2막 피날레에 등장하는 안젤리나의 아리아는 쇼팽의 변주곡 등을 통해 우리 귀에 익숙한 바로 그 선율이다. 본 영상물은 2005년 6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에서의 최신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영국의 저명한 오페라 연출가 피터 홀이 연출을 맡았고, 런던 필하모닉의 수석객원지휘자이자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음악감독인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지휘를 맡았다.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룩산드라 도노세가 타이틀 롤을 열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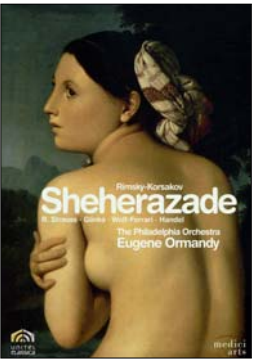
OpusArte DVD BD7008D



EuroArts(Medici Arts) DVD

www.euroarts.com

\*\*\*Medici Arts는 EuroArts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Medici Arts DVD 2072278

림스키코르사코프: 오먼디가 지휘하는 세헤라자데

매력적인 오먼디 사운드의 진수를 담은 영상물

빠어난 관현악 애청곡들로 필라델피아, 유진 오먼디의 사운드를 맘껏 느낄 수 있다. 유진 오먼디가 이끌던 시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수록한 콘서트 영상물. 1977년의 실황으로 부드러운 질감과 화려한 색채를 겸비한 오먼디 사운드의 진수를 만나게 된다. 오먼디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무려 45년의 긴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신들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출중한 사운드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랑하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대표적인 관현악걸작 '세헤라자데'는 이러한 '오먼디 사운드'의 장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아울러 가장 사랑받는 러시아 관현악애청곡 중 하나인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오먼디 자신이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헨델의 협주곡 D장조, 볼프-페라리의 '수잔나의 비밀' 서곡, R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에서 발췌한 관현악 모음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PCM Stereo, Dolby 5. Channel, DTS 5.1 Channel의 오디오 포맷을 함께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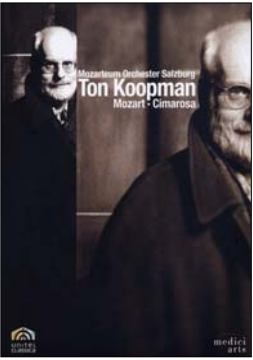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72288

바로크 음악 스페셜리스트  
시모네가 지휘하는 코렐리 걸작선

코렐리 음악의 진수 콘체르토 그로소 Op. 6 을 만나다.

바로크 바이올린소나타의 바이블 "라 폴리아"  
콘체르토 그로소는 바로크 음악의 우아미와 활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음악장르의 하나다. 이탈리아 바로크 소나타형식을 정립한 장본인인 아르칸젤로 코렐리(1653-1713)는 콘체르토 그로소 분야에서도 걸출한 업적을 남겼다. 모두 12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콘체르토 그로소 Op.6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8번은 '크리스마스 콘체르토'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바로크음악의 인기작이다. 본 영상물은 로마의 역사적인 건축물인 산 마르코 바실리카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 스페셜리스트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이끄는 이 솔리스트 베네티가 Op.6을 비롯한 코렐리의 대표작들을 들려준다. Op.6 중에서 '크리스마스 콘체르토'를 포함한 7곡을 골랐으며, 솔로 트럼펫과 현악합주를 위한 독특한 작품인 4성부를 위한 소나타, 그리고 바로크 바이올린소나타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올린소나타 Op.5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명곡인 '라 폴리아'를 함께 연주하였다.



Medici Arts DVD 2072218

모차르트 : 콘서트 아리아와 교향곡 23, 34번

톤 코프만이 지휘하는 모차르트의 콘서트 아리아와 교향곡

2002년 찰츠부르크 콘서트 실황

음악학자, 오르간연주자, 지휘자로 맹활약중인 톤 코프만. 바흐 칸타타 전집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묵묵히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빈 고전파 영역까지 레퍼토리를 확장하면서 지휘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더욱 돈독히 다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본 영상물은 2002년 찰츠부르크에서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자신의 수하인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대신 현대악기 단체인 찰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모차르트에 도전한 코프만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정상급 소프라노 루나 오르고나소바가 'Exsultate jubilate'와 콘서트 아리아 'Chi sa, chi sa, qual sia?'와 'Alma grande e nobil core'를 노래하며, 교향곡 23번과 36번, 그리고 모차르트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인 치마로사의 단막 오페라 'Il maestro di cappella'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 불멸의 피아니스트 시리즈 •

불멸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4인 4색

왜 우리는 이 오래된 영상물에 열광하는가

이 세상에 음악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고 그동안 배출된 연주가가 얼마나 많은가? 콩쿠르가 한번 치러지고 나면 상업적으로 오염된 '천재'라는 딱지를 붙인 연주자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후의'라는 수식어를 붙일 찬사를 붙일 만한, 진정한 감동을 주는 연주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유명 콩쿠르 우승자라고 해도 불안해서 들어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일을 수차례 경험한 진지한 애호가гаа 오랜 명성으로 검증받은 옛 연주가의 기록에 열광하는 것, 글썄 그것은 단순히 의고적 취미가 아닐 것이다. 여기 소개하는 네 명의 거목, 음악적으로 자기 색깔이 분명한 전설 같은 연주자들이며, 이 시리즈는 계속 될 것이다.

♫ 불멸의 피아니스트 1

폴리니와 아르헤리치의 스승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베토벤 소나타: 11, 12번

슈베르트: 소나타 A minor, D537

브람스: 발라드, Op.10

1981년 4월 7일 스위스 루가노 라이브.

알프레도 코르토가 '새로 탄생한 리스트'라고 격찬했던 이탈리아의 피아노 거장, 폴리니와 아르헤리치의 스승으로 유명한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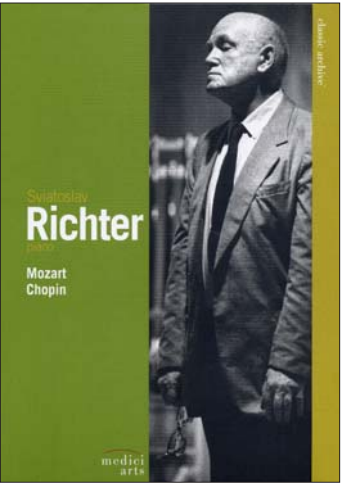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와 브람스의 발라드 연주.

61세 때인 1981년 4월 7일 스위스 녹음.

눈을 꿈쩍거리며 꼭 다문 입을 오물오물 할 뿐 표정변화가 거의 없이 무뚝뚝하고 근엄해 보이지만, 그의 손끝에서 연출되는 선율은 지극히 아름답다. 하일리겐슈타트 유서가 나오기 약 2년 전인 1800년에 작곡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 '어느 영웅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송 행진곡'으로 유명한 12번, 리듬과 조성의 변화가 무쌍한 슈베르트의 소나타 D537, 끝으로 DG의 거의 독보적인 명반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담채화 같은 서정의 브람스의 발라드 op.10를 연주한다. 달콤한 안단테는 압권이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는 피아니스트. 완벽주의자 미켈란젤리의 정수를 보여준다. 넘치지 않으며 수많은 절제를 거쳐 탄생한 베토벤과 슈베르트 그리고 브람스의 연주에서 해탈한 사람의 무표정 속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 피아니스트 허원숙



Medici Arts DVD 3085208

♫ 불멸의 피아니스트 2

어안이 병병해질 정도의 완벽한 거장 피아니스트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

모차르트: 소나타 4, 8, 16번 (K.282, 310, 545)

쇼팽: 에튀드

[ 보너스 ]

쇼팽 - 에튀드, 라흐마니노프 / 에튀드-타블로 Op.39, No.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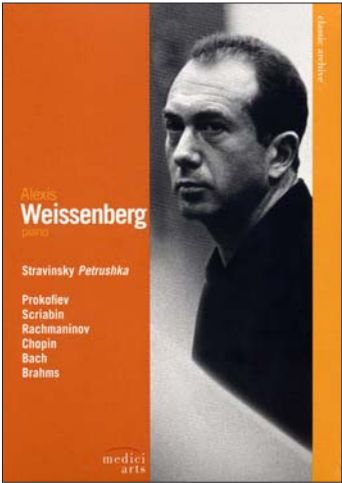
1989년 3월 29일 런던 바비칸 센터 연주 실황.

거장이 74세였던 1989년 3월 29일 런던의 악명 높은 바비칸 센터에서 연주했던 그야말로 주옥같은 연주내용이다. 특히 목직한 왼손 옥타브 화성과 화려한 아르페지오 선율이 조화를 이룬 쇼팽 연습곡 op.10의 제 1곡과 4곡에서는 한동안 카메라를 위에서 잡아 거장의 강건하면서도 결점이 전혀 없는 화려한 피아니즘을 만끽하게 해주는데, 그 완전한 연주에 입이 짹 벌어질 정도다. '이 별' 연습곡은 그 노래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보너스 트랙은 꼭 20년 전 54세 때의 리히테르의 모습을 담은 BBC 방송 내용인데, 라흐마니노프의 에튀드-타블로 한 곡과 쇼팽의 연습곡 op.10의 4번와 12번 '혁명'을, 신기에 가까운 핑거링으로 들을 수 있다.

"건반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도움으로 연주회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의 손 움직임 하나하나를 볼 수 있었다. 쇼팽 연습곡 작품 10-2번. 천하의 리히터도 오른손으로만 치는 부분에 살짝쿵 왼손을 섞었구나. 하지만 그럼 뭐 하나... 그의 손가락 번호를 빠짐없이 알아버렸는데도 나는 그와 비슷하게 칠 수도 없는 걸...."

보너스 트랙에 있는 젊은 시절의 숨막히던 쇼팽 연습곡 연주와 비교해보면 세월의 흔적을 인간적인 너그러움으로 남겨둔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평생을 피아노와 함께 살면서 3589회의 독주회 일지를 작성한 1989년 74세의 피아니스트의 무대 위의 자랑스런 모습. 그를 확인한다."

- 피아니스트 허원숙



Medici Arts DVD 3078048

♫ 불멸의 피아니스트 3

화려한 출세가도를 걷지 않았던 위대한 강철 타건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

스트라빈스키 - 페트루쉬카 악곡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소나타3번

스크리아빈 - 녹턴

라흐마니노프 - 전주곡

쇼팽 - 피아노 소나타 3번, 녹턴, 에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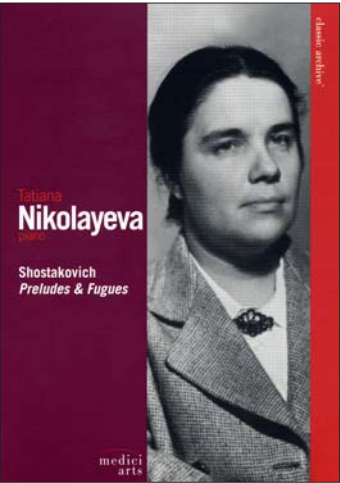
바흐 - 반음계적 환상곡, 파르티타 6번, 예수는 인간 소망의 기쁨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2번

그가 연주하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최고의 연주 중 하나라고 단언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1929년 불가리아 소피아 태생의 프랑스 피아니스트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가 1950년대 중반부터 자신의 예술을 다시 생각해보고 공부하고 가르치며 한동안 연주활동을 중단했다가, 1967년 카라얀의 베를린 필과 함께 공연하면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던 시점을 전후로 한 기록이다. 바이센베르크는 카라얀이 반했던 피아니스트였는데, 영상물이 그럴 만 했다고 느끼게 해준다. 바이센베르크의 레퍼토리 반경을 알 수 있는 독주곡 하나하나가 특별한 감동을 주지만 특히 맘을 뽐낼리며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조르주 프레트르와 함께 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놀라울 뿐이다. 정교하면서도 우아하고 웅혼한 기백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브람스 가운데 하나다. 마지막 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도 우아함과 노련함에서 게자 안다의 명연주에 필적할 만하다. 보너스 트랙은 그가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페트루쉬카 관련 인터뷰다.

“팔크 감독이 1965년에 연출한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페트루쉬카는 손가락과 그림자와 영상이 어우러진 한 편의 춤이다. 흰색과 검정만으로 된 화면에는 그의 손가락과 해머와 그림자가 함께 춤을 춘다. 질척거리고 흐느적거리는 춤이 아니라 건조한 골격의 반란이다.”

- 피아니스트 허원숙



Medici Arts DVD 3085248

♫ 불멸의 피아니스트 4

누가 뭐래도 절대적인 권위

니콜라예바

연주자와 레퍼토리만 보고도 무조건 집어들 애호가들이 많은 니콜라예바가 연주하는

쇼스타 코비치 24개의 전주곡과 푸가

[ 보너스 ]

“쇼스타코비치를 연주하는 니콜라예바”라는 제목의 14분 다큐멘터리

1992년 12월 21부터 30일까지 연주기록. 그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이 영상물은 연주자와 레퍼토리만 보고도 무조건 집어들 애호가들이 많을 것이다. 쇼스타코비치의 '24개의 전주곡과 푸가'가 이미 오래 전부터 하이피어리언의 명반으로 감동을 준 레퍼토리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것은 니콜라예바의 방대한 레퍼토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니콜라예바는 1952년에 레닌그라드에서 이곡을 초연했던 사람이며, 1993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도 바로 그 곡이었다. 여기에 그 작품의 태생적 이유로 빼기를 박아본다. 니콜라예바는 26세 때 바흐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쇼스타코비치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녀의 연주에 반했던 쇼스타코비치가 바로 그녀를 위해 쓴 작품이 바로 '24개 전주곡과 푸가'였다. 이런 운명적 이유로 이곡에 관한 한, 아무리 뛰어난 연주가 등장한다고 해도 니콜라예바의 그것이 지닌 권위에는 비할 수 없는 것이다. 14분에 걸친 다큐멘터리가 보너스로 실렸는데, 제목이 '쇼스타코비치를 연주하는 니콜라예바'다.

“흑백화면 속의 쇼스타코비치를 추억하는 니콜라예바는 바흐 콩쿠르에서 쇼스타코비치를 만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한다. 니콜라예바에게는 바흐 콩쿠르의 1등상도 소중하지만 그 콩쿠르로 인연이 된 쇼스타코비치와의 만남이 귀중하다. 하지만, 쇼스타코비치 또한 그녀에게서 동기를 부여받고 가장 은밀한 일기장과도 같은 마흔 여덟 개의 전주곡과 푸가를 작곡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 귀중한 곡들은 원본 그대로 푸른 피의 피아니스트에게 전달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쇼스타코비치의 질곡의 세월은 그녀의 투박하지만 솔직한 손으로 숨쉬고 움직이고 빛을 내며 울고, 웃고, 달리고, 춤을 춘다. 감히 내가 그녀의 음반을 감상한다고 말할 수나 있을까. 무릎을 꿇고 귀한 하사품을 받는 것처럼 그녀의 음악을 받았다.”

- 피아니스트 허원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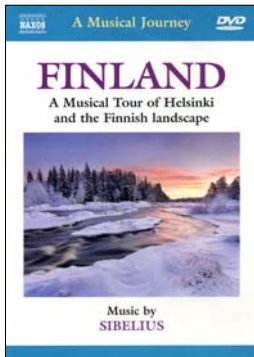
## Naxos DVD 음악여행 시리즈

www.naxos.com

### ●● 음악여행 시리즈 ●●●

폭발적인 인기!!  
놀라운 자연,  
위대한 음악가의 인생과 함께하는 클래식 영상물의 명작.  
낙소스 음악여행.....

Finland  
England  
Germany  
Uzbekistan  
Aust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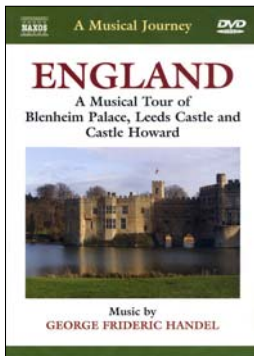


Naxos DVD 2,110508

### 핀란드 (Finland)

#### 시벨리우스의 음악과 함께 하는 핀란드 여행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를 스케치하면서 시작하는 이 영상물은 극적인 시벨리우스 음악과 함께 한다. 동시대인이었던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무척 좋아했으며 핀란드 국민회화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화가 악셀리 갈렌 칼렐라와의 관련영상은 특히 흥미롭다. 헬싱키 국립 박물관의 놀라운 프레스코 그림들은 핀란드 역사의 이채로운 경험이다. 핀란드 남동부 삼림지대 미켈리의 나무들, 겹겹이 쌓아놓은 목재들과 함께 있으면 산림욕을 한 느낌이다. 케리마키에서 시골길로 들어서는 길의 꽃, 만발한 루빈, 물에서 흐느적거리는 풀, 생기 넘치는 동물들이 있는 풍경은 시벨리우스의 칸초네타 음악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유명한 갈렌 칼렐라의 '소년과 까마귀' 등 영화와 함께한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가 대미를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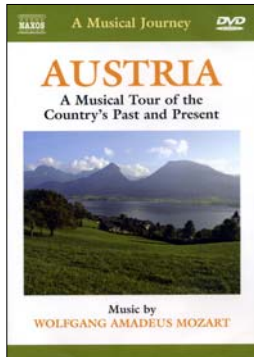


Naxos DVD 2,110532

### 영국 (England)

#### 눈을 의심케 하는 호화로운 건축물

이 영상물은 세 개의 위대한 영국 건축물을 보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하나는 옥스퍼드에서 북쪽으로 13킬로미터 떨어진 우드스톡에 자리 잡고 있는 블렌하임 궁전(Blenheim Palace). 이곳은 옥스퍼드 출신의 유명한 재상 처칠이 태어난 곳이다. 이곳 브렌하임 궁전에서는 처칠이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많은 업적들을 한 눈에 속속들이 살펴 볼 수 있다. 이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중의 하나로 꼽히는 캔트에 있는 리즈 캐슬(Leeds Castle)로 여행하게 된다. 그야말로 그림 같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매혹적인 풍경이며, 실내에는 고색창연한 옛 가구들과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다음은 노스요크셔에 있는 유서 깊은 저택 캐슬 하워드(Castle Howard). 영국에서 가장 수려한 저택의 침실과 실내 전경이 눈을 황홀하게 만든다. 헨델의 수상음악과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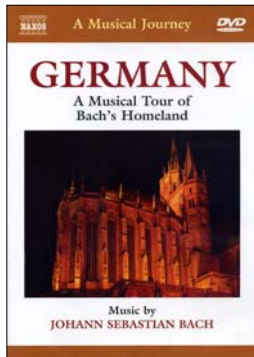


Naxos DVD 2,110533

### 오스트리아 (Austria)

#### 안방에 앉아서 오스트리아의 명소를 여행하다

크게 6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영상물은 모차르트 작품목록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 괴헬의 고향 슈타인(Stein), 빈의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하고 북서쪽 도나우 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크렘스(Krems),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트 탄생지와 성 제바스티안 묘지를 여행한다. 잘츠부르크에서 시작해서 브람스가 살았던 바트 이슬, 그리고 볼프강 호수의 곳곳을 살살이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빈의 남쪽 외들링 방향에 있는 락센부르크 궁정을 볼 수 있고, 오스트리아의 건축가이자 생태주의자였던 프리덴슈트라이히 훈데르트바서의 건축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명물과 명소를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주다니, 놀라울 뿐이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오보에 협주곡이 흐르는데, 오스트리아의 풍광과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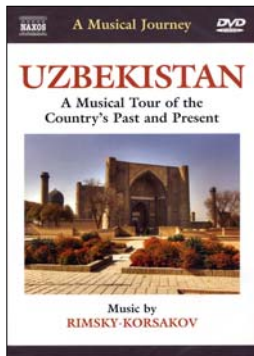


Naxos DVD 2,110534

### 독일 (Germany)

####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음악인생을 여행하다

이 아이템은 '독일' 편이지만,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인생과 함께 한 영상물이다. 우선 그의 고향이 있는 투링겐을 집중적으로 여행한다. 주지하듯이 바흐는 1685년 3월 21일 독일 투링겐 주 아이제나흐에서 태어났다. 이어 바흐가 처음으로 고용되었던 아르슈타트를 여행하고, 최후의 27년을 보냈던 라이프치히로 여행한다. 성 토마스 교회, 성 니콜라스 교회를 안방에서 세밀하게 여행하며, 투링겐 지방의 목장, 숲이 우거져 있는 풍경은 너무도 아름답다. 후반부에는 바흐의 나움부르크와의 연관도 놓치지 않았고, 바흐 가족과 긴 인연을 맺었던 에르푸르트 도시의 전경은 마무리 장면이다. 바흐의 건반악기 협주곡이 영상을 잔잔하게 어루만지며, 화질도 무척 좋다.



Naxos DVD 2,110535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슬람 문화와 러시아 음악

수세기 동안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주목받아왔던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풍광을 만끽하게 하는 귀중한 영상물이다. 핵심 여행지는 동서양이 만나는 실크로드길에서 오아시스 역할을 했던 부하라(Bukhara)와 히바(Khiva)다. 부하라에서는 모스크와 신학교인 마다리스, 지붕이 평평한 벽돌집 등 엄청난 건축물이 압도하며, 전편에 깔려있는 이슬람 건축물 장식의 빼어난 아름다움은 신비감마저 불러일으킨다. 1세기 이전에 세워진 곳, 수많은 통치자의 기념비적 역사를 대변한다. 우즈베키스탄 서남부에 위치해있고 옛 실크로드의 중요한 오아시스였던 히바의 모든 풍경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멋진 영상미를 자랑한다. 림스카-코르사코프의 그림 같은 음악, 세헤라자데, 아라비아안나이트, 샤드코의 선율이 흐른다.

#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http://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8,500개 음반 / 25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http://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Medici arts는 Euro Arts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Coming Soon.....*



Medici arts 3078058

## Verbier Festival Highlights 2007

이 시대 최고의 연주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Martha Argerich  
Jushua Bell  
Renaud Capucon  
Sir Andrew Davis  
Nelson Freire  
Evgeny Kissin  
Mischa Maisky



Medici arts 3073428

## Martha Argerich Evening Talks

영상으로 만나보는 아르헤리치의 삶과 음악

a film by Georges Gachot



표지사진  
영상으로 만나는 건반위의 전설들

〈아울로스뉴스〉 2008년 6, 7월호

통권 제 32호 발행 : 2008년 8월 5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